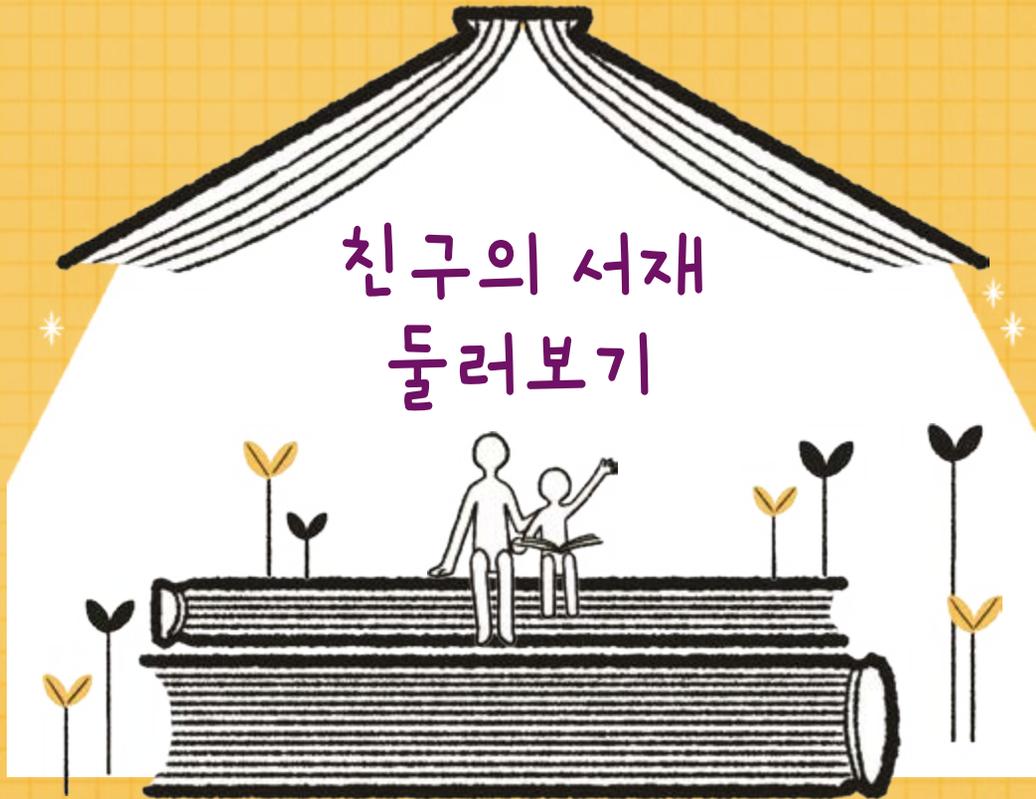


2018

초등학생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 목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서관
JEJU PUBLIC LIBRARY



힐러 두기

📖 목적

- 이 도서 목록은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이 연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 수록범위 및 배열

- 제주도서관 및 제주도내 초등학교 도서관 최다 대출도서(2016.1. ~ 2017.12.)를 학년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매월 선정된 초등학생 추천도서 목록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 도서의 표지, 서명, 저자명, 출판사 및 선정된 도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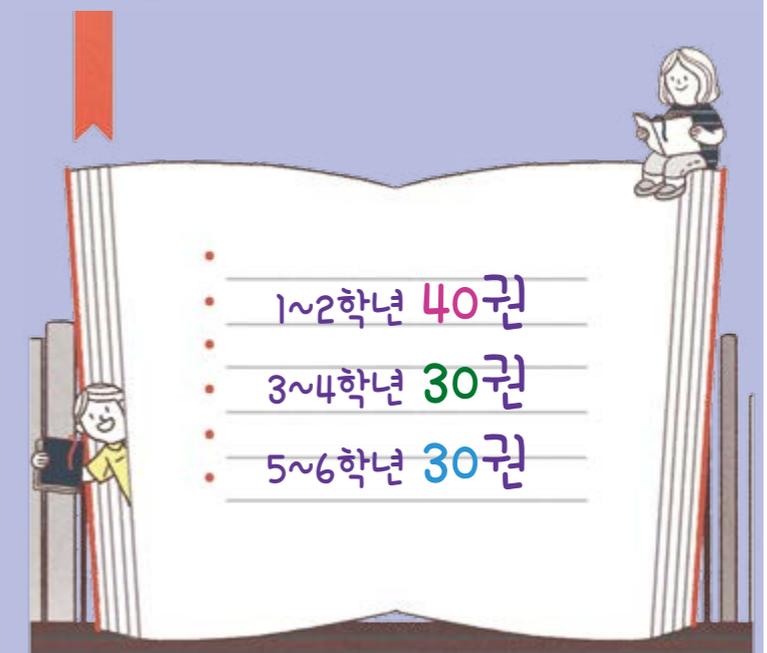
차례

제주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최다대출도서목록	04
제주도내 초등학교 도서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최다대출도서목록	3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초등학생 추천도서	64

제주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I)

최다대출도서목록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1	1·2	13층 나무 집	앤디 그리피스	시공주니어
2	1·2	감자 좀 달라고요!	모린 퍼거스	책과콩나무
3	1·2	강아지똥	권정생	길벗어린이
4	1·2	개그맨	김지연	웃는돌고래
5	1·2	공짜표 셋 주세요!	홍종의	파란자전거
6	1·2	괴물들이 사라졌다	박우희	책읽는곰
7	1·2	깊은 밤 호랑이처럼	메리 로그	키즈엠
8	1·2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사계절
9	1·2	꼬마해녀와 물할망	선자은	이퍼블릭
10	1·2	공공공	윤정주	책읽는곰
11	1·2	꿈꾸는 변신대왕	이지선	장영
12	1·2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	고슴도치
13	1·2	다섯 손가락	셀마 운글라우베	미디어창비
14	1·2	당근 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스므리티 프라사담 홀스	풀과바람
15	1·2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한림출판사
16	1·2	도깨비가 데려간 세 딸	오호선	길벗어린이
17	1·2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한림
18	1·2	도토리 마을의 서점	나카야 미와	웅진주니어
19	1·2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	1·2	땅속나라 여왕님의 별난 옷	양영지	국민서관
21	1·2	모기가 할 말 있대!	하이디 트르팍	길벗어린이
22	1·2	모래 물고기	박준형	소년한길
23	1·2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시공주니어
24	1·2	방사능 마을의 외톨이 아저씨	김수희	미래아이
25	1·2	백점빵	배욱찬	책과콩나무
26	1·2	빠꼼 아저씨네 동물원	케빈 월드론	예림아이
27	1·2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안영은	주니어김영사
28	1·2	수다쟁이 물고기	레미 쿠르종	씨드북
29	1·2	엄마 아빠 결혼 이야기	윤지희	사계절
30	1·2	왜 내가 치워야 돼	정하영	책속물고기
31	1·2	이상한 엄마	백희나	책읽는곰
32	1·2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봄나무
33	1·2	잠잠깨비	이연실	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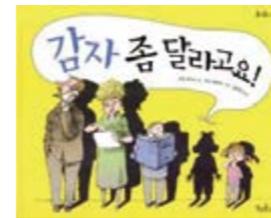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34	1·2	주먹이	서정오	곰은나무
35	1·2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비룡소
36	1·2	진짜 안경 쓰고 싶단 말이야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37	1·2	초원의 왕 대 숲 속의 왕	기무라 유이치	키즈엠
38	1·2	텅 빈 냉장고	가에탕 도레뮌스	한솔수북
39	1·2	토끼 뺑뺑이	정해왕	길벗어린이
40	1·2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토토북
41	3·4	겁보 만보	김유	책읽는곰
42	3·4	금지어 시험	임근희	좋은책어린이
43	3·4	길 위의 수호천사	고정욱	좋은책어린이
44	3·4	고갱이	김금숙	보리
45	3·4	나쁜 어린이 표	황선미	웅진닷컴
46	3·4	내 친구 마로	김홍모	보리
47	3·4	단추 마녀의 장난감 백화점	정란희	키다리
48	3·4	또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주니어김영사
49	3·4	똥섬이 사라진대요	안영은	파란정원
50	3·4	마녀 교장과 아주 특별한 시계	김해우	크레용하우스
51	3·4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하엘 엔데	소년한길
52	3·4	막난 할미와 로봇곰 덜덜	안오일	뜨인돌어린이
53	3·4	명탐정 시토	안토니오 G. 이투르베	풀빛
54	3·4	새우눈 가족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5	3·4	스마트폰이 먹어 치운 하루	서영선	팜파스
56	3·4	아드님, 안녕하세요	강민경	좋은책어린이
57	3·4	엄마 나를 포기하세요!	박현숙	좋은책어린이
58	3·4	엄마 몰래	조성자	좋은책어린이
59	3·4	여자애들은 왜?	원유순	좋은책어린이
60	3·4	우리 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	심은경	라임
61	3·4	우리동네 마릴리 아줌마	함영연	킨더주니어
62	3·4	월화수토토토일	신채연	좋은책어린이
63	3·4	유령과 함께한 일주일	김정미	교학사
64	3·4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안오일	크레용하우스
65	3·4	제주섬의 어머니산 한라산	김은하	웅진주니어
66	3·4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재미마주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67	3·4	춤추는 책가방	송언	좋은책어린이
68	3·4	칭찬 한 봉지	정진	좋은책어린이
69	3·4	콧구멍 왕자	김회경	사계절
70	3·4	타임머신을 타고 온 선생님	원유순	좋은책어린이
71	5·6	개고생	이창숙	상상의힘
72	5·6	구스범스	R.L. 스타인	고릴라박스
73	5·6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시공주니어
74	5·6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시공주니어
75	5·6	니키의 도크 다이어리	레이첼 르네 러셀	미래주니어
76	5·6	돌아온 진돗개 백구	송재찬	여름숲
77	5·6	동학 농민군 대장, 녹두 장군	햇살과나무꾼	비룡소
78	5·6	두근두근 한국사	김종엽 외	양철북
79	5·6	명탐정 교실	윤재중	소나무
80	5·6	몽실 언니	권정생	창작과비평사
81	5·6	뱀파이어 시스터	시에나 머서	가람어린이
82	5·6	빨강 연필	신수현	비룡소
83	5·6	사라진 마법의 다이아몬드	안비루 야스코	예림당
84	5·6	살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화이트	시공사
85	5·6	소년 명탐정 정약용	한이	청어람주니어
86	5·6	스무고개탐정	허교범	비룡소
87	5·6	시간 가게	이나영	문학동네
88	5·6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파랑새어린이
89	5·6	온양이	선안나	샘터
90	5·6	용감무쌍 오총사와 수상한 소금 전쟁	이경순	개암나무
91	5·6	용선생의 시골벽적 한국사	금현진	사회평론
92	5·6	웜피 키드	제프 키니	아이세움
93	5·6	자전거 도둑	박완서	다림
94	5·6	자존심	김남중	창비
95	5·6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제로니모 스틸턴	사파리
96	5·6	조선 소년 무걸, 무기를 만들다	이규희	그린북
97	5·6	초등학생을 위한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J. M. 바스콘셀로스	동녘주니어
98	5·6	타이거 수사대 T.I.4.	토마스 브레치나	조선Books
99	5·6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100	5·6	흑기사 황보찬일	소중애	교학사



13층 나무 집
앤디 그리피스 / 시공주니어

13층 나무 집은 두 소년이 눈치 안보고 실컷 놀 수 있는 환상적인 놀이터이면서, 둘이 함께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앤디는 글을 쓰고 테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나가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다. 만화와 동화의 중간쯤,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실험을 엮어내는 세련된 감각을 뽐내는 책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한바탕 땀나게 뛰어 놓고 온 느낌이 든다. 20개국에 출간되며 어린이 독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감자 좀 달라고요!
모린 퍼거스 / 책과콩나무

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 식구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마음을 그린 유쾌한 이야기이다. 그런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똑똑한 형을 닮아 보라는 잔소리나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한바탕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 준다.



강아지똥
권정생 / 길벗어린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강아지똥이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내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1996년 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우리 그림책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그 속에 담긴 사랑과 나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개그맨
김지연 / 웃는돌고래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눠 주느라 정작 자신은 웃음을 잃어버린 개그맨과 그런 개그맨에게 웃음을 찾아 주고 싶은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웃기는 개그맨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다. 무대 뒤 개그맨의 진짜 모습을 담았다. 한 번 웃기기 위해 100번을 연습하는 개그맨, 진지한 사유와 철학으로 무장한 개그맨,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습해 무대에 서는 개그맨의 이야기다.



공짜표 셋 주세요!
홍종의 / 파란자전거

마지막 공짜표를 쓰는 일곱 살 태림이와 첫 공짜표를 쓰는 예순여섯살 할아버지의 아름답고 멋진 여행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상반된 상황에 놓인 두 주인공을 공짜표라는 공통 소재로 엮어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괴물들이 사라졌다
박우희 / 책읽는곰

늘 인간 중심에서 지구를 보던 기존의 사고를 뒤집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괴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림책이다. 괴물들과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장면 뒤에는 쫓겨나는 괴물과 파괴된 자연을 대조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 생각할 기회를 마련한다.



깊은 밤 호랑이처럼
메리 로그 / 키즈엠

2013년 칼데콧 아너 상 수상작으로,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과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 주는 그림책이다. 차분하면서도 운율감이 느껴지는 글과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그림이 아이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감정을 갖게 한다.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 사계절

옛날에 부모 없이 혼자서 근근이 살아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하루는 아이가 밤늦도록 일하고서 집에 가는데, 누가 “애, 나 돈 서 푼만 꺾 줘.” 하고 말을 걸었다. 가만 보니 발이 없어 도깨비로구나 싶은데, 하루 종일 번 돈이 딱 서 푼인데 그걸 꺾 달라니, 멈칫할 수밖에. 하지만 아이는 꼭 갚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할지언정 큰맘 먹고 돈을 꺾 준다. 약속대로 도깨비는 다음 날, 돈 서 푼을 갚으러 왔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도깨비는 돈 값은 걸 깜박 까먹고 또 오는데...



꼬마 해녀와 물할망
선자은 / 사파리

해녀가 되고 싶은 물할망이 해녀들이 어떻게 물질을 배우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동화책이다. 물할망은 원래 물 속에 나타나 해녀들을 해치는 존재라고 전해 내려오지만 이 책에서는 해녀와 친구가 되고 싶은 재미있는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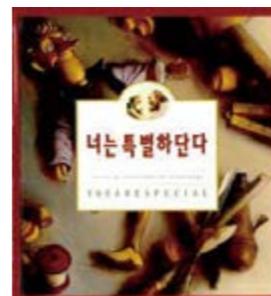
공공공
윤정주 / 책읽는곰

냉장고 속 온갖 친구들이 한판 신나게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이야기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다. 누구나 좋아하는 냉장고 속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하고, 이 음식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온갖 수다와 함께 멋진 사건들을 펼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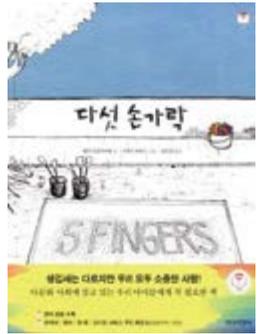
꿈꾸는 변신대왕
이지선 / 장영

꿈에 대한 아이의 상상과 어른의 기대감 사이의 언밸런스를 위트 있게 포착한 그림책이다. 아이는 멋대로 상상하고, 어른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성장을 둘러싸고 교차되는 아이와 어른의 심리를 살짝살짝 엿보는 것이 이 그림책의 묘미이다. 꿈과 성장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을 편안하게 풀어내고, 즐겁게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꿈에 대한 상상을 즐겁고 설레는 경험으로 간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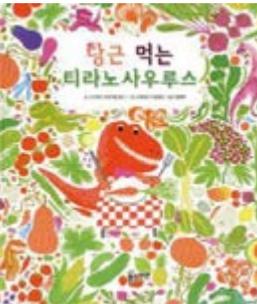
너는 특별하다
맥스 루케이도 / 고슴도치

웹믹이란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든 작은 ‘나무 사람들’이다. 웹믹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란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서로에게 붙이고 다니는 것.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웹믹, 재주가 뛰어난 웹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웹믹, 한 가지도 빠어난 재주를 가지지 못한 웹믹들은 늘 점표를 받고만다. 펀치넬로는 점표만 가득 받게 되자, 스스로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봐’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별표도 점표도 없이, 깨끗한 나무일 뿐인 웹믹 루시아로 인해 작은 계기를 맞게 된다. 바로 ‘나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다’는 것이다.



다섯 손가락
셀마 윤글라우베 / 미디어창비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책에서는 어깨동무를 한 다섯 명의 뒷모습을 보여 준다. 다섯 명은 모두 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다. 다섯 손가락처럼 각기 다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를 의미하여 서로 달라도 모두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표현한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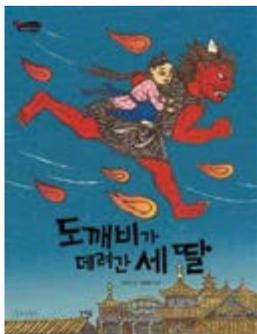
당근 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스므리티 프라사담 홀스 / 풀과바람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 쿵광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말하는 그림책이다. 스므리티 프라사담 홀스 작가는 '채소 먹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독특한 이유'를 기발하고 천연덕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쿵광이와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다른 점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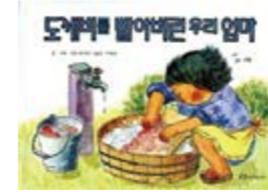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 한림출판사

기발한 상상력으로 전쟁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전쟁이 나쁘고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딱딱하게 가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 준다. 이야기를 통해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전쟁의 무의미함을 일깨워 준다.



도깨비가 데려간 세 딸
오호선 / 길벗어린이

아름다운 세 딸이 있는 가난한 나무꾼이, 어느 날 "아!"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나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려고 세 딸이 차례로 도깨비에게 간다. 도깨비는 세 딸을 땅속 집으로 데려가 사람의 다리 뼈다귀를 먹으라고 준다. 자기에 맞는 신봉감을 판별하는 시험인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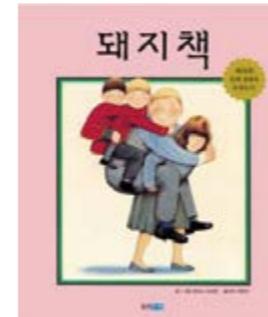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 한림출판사

활달한 상상력과 그에 맞게 큼직하게 그려나간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책. 빨래를 좋아하는 엄마가 도깨비를 빨아버리는 장면에서는 같이 크게 웃어주고 싶은 기분이 나는 '씩씩한' 그림책이다.



도토리 마을의 서점
나카야 미와 / 웅진주니어

마을 서점에는 재미있는 책이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핀다. 꾸지람을 듣고 우울한 지로는 책을 읽고 용기를 얻고, 병원에 입원한 츠쿠는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 일요일의 구연동화에 온 아이들은 금세 보물을 찾아 나선 주인공이 된다. 생생한 이야기와 세밀한 묘사는, 독자에게 책을 가까이하게 하고 책이 가진 마법의 힘을 믿게 만든다.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 웅진주니어

가정 내에서 여성이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칫 어린이책에서 표현하기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군더더기 없고 유머러스한 글, 치밀하게 계산되어 볼거리가 풍성한 그림과 화면 구성으로 진지한 주제를 설득력 있고 쉽게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글과 그림에서 물씬 풍기는 유머와 위트는 그림책 읽는 재미를 한층 더해 줘 정말 완벽하게 매력적인 그림책이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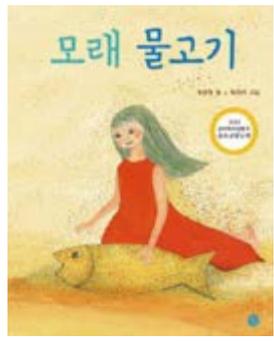
땅속나라 여왕님의 별난 옷
양영지 / 국민서관

변덕쟁이 여왕님과 옷을 만드는 침방대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전통 옷감을 알려 준다. 여왕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옷을 지어 내라 한다. 새 옷은 여왕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불같이 화나게 만들기도 한다. 때문에 침방대신은 어떤 옷감을 쓸지 고민 또 고민을 하는데... 침방대신의 고민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옷감을 만드는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또 어떻게 멋을 내고 옷감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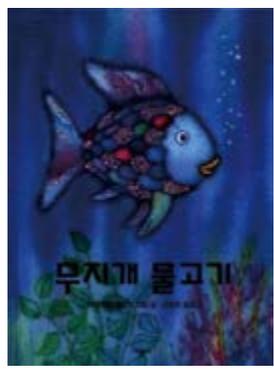
모기가 할 말 있다!
하이디 트르팍 / 길벗어린이

2014년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으로, 모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생태 그림책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암컷 모기 게르다이다. 게르다가 “안녕!”하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게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날씨라든가 장소라든가 하는 것들을 옆집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모기의 생김새나 먹이, 짝짓기와 부화 등 모기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모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살이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모래 물고기
박준형 / 소년한길

원하는 것을 이룬 순간 모래 알갱이로 변해 흩어지는 모래 물고기의 모습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 인어공주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면서도 행복해하는 모래 물고기와 다음 날 떠오른 햇살 아래 바다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래 조각들의 모습은, 비극으로만 기억되는 인어공주와 달리 아련한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전한다. 이 모든 장면은 담담하지만 따스한 그림을 통해 전달된다.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 시공주니어

몸에 반짝이 비늘이 많은 물고기가 예쁜 것을 뽐내다가 친구를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짝이 비늘을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깔보고 좋은 것을 혼자만 독차지하면 자기도 괴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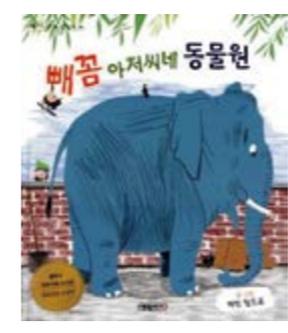
방사능 마을의 외톨이 아저씨
김수희 / 미래아이

방사능 때문에 버려진 후쿠시마의 어느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마쓰무라 나오토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방사능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나오토 아저씨의 이야기는 감동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죽음의 땅에서 꺼져 가던 여러 생명들을 돌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응원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백점빵
배옥찬 / 책과콩나무

주인공 아이의 아버지는 제빵사이다. 어떤 빵이든 만들어 내는 아버를 신기해하던 아이는 아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지하실에 있는 연구실에 들어간다. 아빠 연구실에서 백점을 맞게 해 주는 ‘백점빵’ 조리법을 발견한 아이는 혼자서 직접 백점빵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백점빵을 먹었더니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답이 저절로 떠올랐다.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들은 아이는 또 시험에서 백점을 맞기 위해 백점빵을 엄청나게 먹었다. 과연 아이는 또다시 백점을 맞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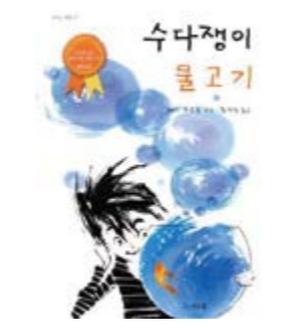
빼꼼 아저씨네 동물원
케빈 윌드론 / 예림아이

아름다운 색감과 동물들의 개성을 잘 살린 일러스트와 교훈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2009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받았다. 빼꼼 아저씨가 동물들에게 무심코 던진 말들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이야기를 읽어 보고, 말 한 마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자극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집중력이 자라고 색에 대한 감각도 키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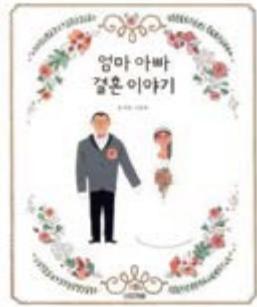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안영은 / 주니어김영사

천재 다 빈치의 실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으로, 다빈치가 스포르차 공작과 베아트리체 데스테의 결혼식을 케이크로 만들려고 그랬던 한 장의 그림에서 시작되었다. 글과 그림, 어느 부분도 빠지지 않는 멋진 국내 창작 그림동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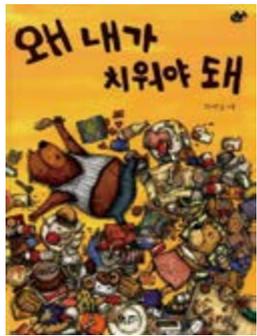
수다쟁이 물고기
레미 쿠르종 / 씨드북

보글보글하는 거품소리를 연구해 수다쟁이 핀두스와 물고기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우정을 쌓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독특하고도 문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새롭게 그려냈다. 특히 작가의 전작들을 관통하는 주제인 ‘간과하기 쉬운 작은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특유의 시적인 그림과 꿈결 같은 글을 통해 흥미진진하고도 마법같이 신비롭게 풀어놓았다.



엄마 아빠 결혼 이야기
윤지희 / 사계절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앨범을 소재로 결혼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 아빠 엄마처럼 결혼하겠다는 아이. 그 아이에 눈에 비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 결혼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끼리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아이는 그림책을 읽고, 엄마 아빠의 진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혼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끼리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오래오래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떠올릴 수 있다.



왜 내가 치워야 돼
정하영 / 책속물고기

즐리는 요리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한다. 그리는 먹고, 더럽히고, 버리고, 어지른다. 즐리는 어느 날 왜 나만 치워야 되냐며 폭발하고, 둘은 집을 반으로 나눠 각자 치우기로 한다. 그러자 그리와 즐리는 썩어 둔 쓰레기는 즐리가 치우는 곳까지 넘어온다. 하지만 즐리는 그리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의 따라 집을 어지럽히고 치우지 않게 된다. 집 안에는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가득하고, 점점 산처럼 쌓인다. 즐리와 그리는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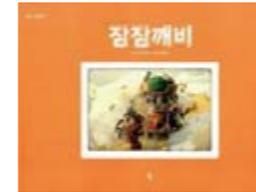
이상한 엄마
백희나 / 책읽는곰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회사에 있는 엄마에게 호호가 열이 심해 조퇴했다는 전화가 걸려 온다. 그때부터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타서 여기저기 전화를 건다. 한편 집에 돌아온 호호는 조금 겁이 나지만 목소리가 따스한 '이상한 엄마'를 만난다. 엄마, 어머님, 이모님, 선생님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선녀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에게, 부모 외의 어른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 봄나무

"너, 또 코 후비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남들은 코를 후비는 거라고 오해하겠지만, 실은 코에 달린 스위치를 눌러 '신바람 빔'을 쏘는 거다. 이 빔은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 주기 때문에 야단을 치면 안 된다. 요 개구쟁이 녀석의 말도 안 되는 귀여운 변명을 듣고 있노라면 한없이 유쾌해진다.



잠잠깨비
이연실 / 반달

잠잠깨비, 당당깨비, 쑥쑥깨비! 밤마다 아이 방에 찾아와 키를 키우는 깨비들이다. 깨비들은 아이들이 잠들었나 안 들었나 알 수 있는 소리통을 곁에 두고 잠을 잔다. 소리통에서 띵띵 띵 하고 아이가 잠들었다는 신호가 울리면 부랴부랴 일어나 짐을 싸서 아이 방으로 간다. 아이 방으로 가는 길은 꽤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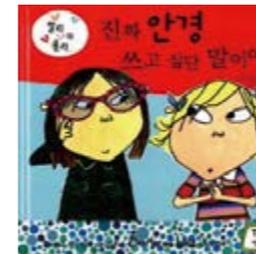
주먹이
서정오 / 삼성출판사

옛날,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부부가 오랜 바람 끝에 사내아이를 얻게 되는데, 꼭 주먹만 해서 이름을 주먹이라고 지었다. 어느 날, 주먹이가 아버지를 따라 낚시터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면서 온갖 모험이 시작된다. 황소 배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 술개 발에 채여 술개의 먹이가 될 뻔하기도 하고, 잉어에게 먹혀 잉어 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주먹이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 비룡소

늘 지각하는 존과 존의 말을 믿지 않는 선생님을 통해 교육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존은 날마다 학교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지각을 하곤 한다. 그 때마다 선생님에게 지각한 이유를 말하지만 선생님은 존에게 더욱더 심한 벌을 준다. 교육에서는 이해와 관심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진짜 안경 쓰고 싶단 말이야
로렌 차일드 / 국민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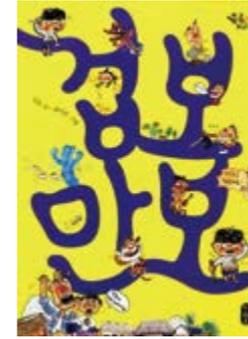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안경의 올바른 쓰임새와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르쳐 준다. 로렌 차일드 특유의 발랄한 개성이 담긴 이 책을 보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면 왜 눈에 좋지 않은지, 그리고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초원의 왕 대 숲 속의 왕

기무라 유이치 / 키즈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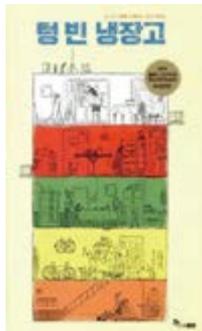
작은 섬에서 자존심 센 아빠 사자와 아빠 고릴라의 치열한 낚시 대결이 펼쳐졌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던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더니, 강물이 점점 불어나서 작은 섬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빠 사자와 아빠 고릴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 낚시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강의 물살은 아주 빨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 큰 위험에 빠져 있었다. 초원의 왕 아빠 사자와 숲 속의 왕 아빠 고릴라는 이 위험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경보 만보

김유 / 책읽는곰

이 책의 주인공 만보는 세상 모든 게 두려운 소심한 아이다. 만보는 옛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실제로 옛이야기 속에서 불러 나온 존재들이 불쑥불쑥 만보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한다. 만보는 때로는 고운 마음씨를 발휘하고 때로는 엄마의 충고를 떠올리며 시련을 헤쳐 나간다. 작가는 성장이라는 전통적인 주제 뒤에 숨은 문제의식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와 옛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버무려 냈다.



텃빈 냉장고

가에탕 도레뮌스 / 한솔수북

2015 볼로냐 라가치상 'Book & Seeds' 수상작. 이웃이 건넨 말 한마디에 행복이 마법처럼 커지는 이야기. '다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는 소재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 속에 녹여낸 예술적이면서도 개성 강한 그림책이다. 세로로 길쭉한 책 판형은 각각의 층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여 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칸칸이 담고 있는 냉장고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금지어 시험

임근희 / 좋은책어린이

엄마 말에는 "싫어!"라고만 하는 아이와 아이 말에는 "안 돼!"라고만 하는 엄마. 세대가 다른 아이와 엄마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다면, 둘의 간격을 충분히 좁힐 수 있다. 이 책은 사소한 것으로 매일 아웅다웅하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동화이다.



토끼 뺑뺑기

정해왕 / 길벗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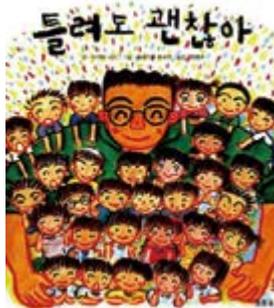
토끼는 몸집이 작아서, 노루와 멧돼지 여우처럼 큰 동물들에게 늘 놀림받고 괴롭힘 당한다. 그러던 어느날 토끼는 몸이 커지는 뺑뺑기 기계 속에 들어가고, 숲속에서의 상황은 반전된다. <토끼 뺑뺑기>는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하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림책이다.



길 위의 수호천사

고정욱 / 좋은책어린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무관심한 오늘날의 현실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동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 온 고정욱 작가의 책이다.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 토토북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봐"로 시작하는 수업 시간에 잘 모르는 아이, 자신이 없는 아이의 가슴은 오그라든다. 망설이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실이 틀려도 괜찮은 곳, 틀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 동화책이다.



꼬쟁이

김금숙 /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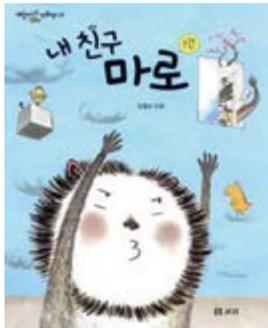
여덟 형제 중 막내인 꼬쟁이의 눈으로 바라본 가족들의 소탈한 이야기가 때로는 웃음 짓게 만들고, 때로는 가슴 따뜻하게 전해진다. 더불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꼬쟁이와 동무들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 넘어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나쁜 어린이 표

황선미 / 이마주

작가의 학창 시절 스승에 대한 추억과 이제는 다 자라 엄마 품을 떠난 큰 아들의 경험을 모티브로 썼다. 아이의 내면과 정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작가 의식 위에 사실적인 캐릭터와 흥미로운 사건, 감동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이 책은 오랜 세월 수많은 어린이, 부모, 선생님들의 가슴을 적시며 우리 창작 동화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창작 동화 최초로 100쇄를 출간하고, 100만 부 돌파 기록을 세웠다.



내 친구 마로

김홍모 / 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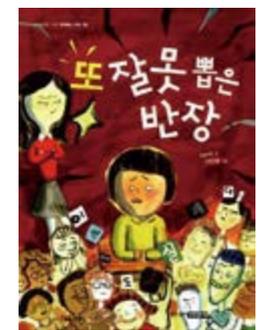
귀는 삐죽, 털은 복실, 배는 볼록, 신비하고 색다른 캐릭터인 마로와,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어린이 예빈이와 동희가 '시간의 페이지'를 통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시간 여행을 안내하는 마로가 몸과 마음이 힘든 예빈이와 동희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처럼, 공부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상상력을 전하는 만화가 될 것이다.



단추 마녀의 장난감 백화점

정란희 / 키다리

'왜 떼를 쓰면 안 되는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지, 질서가 왜 필요한지'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상상의 공간인 장난감 백화점으로 초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편식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두 식당에 초대했던 단추 마녀가 이번에는 '장난감 백화점'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은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의 모습들, 가끔씩 내가 가졌던 생각과 행동들, 눈살 찌푸렸던 경험들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경험을 통해 통쾌함과 동시에 특별한 교훈을 얻게 된다.



또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 주니어김영사

<잘못 뽑은 반장>의 두 번째 이야기이다. 1대 잘못 뽑은 반장 이로운에 이어, 이번에는 '어쩌다' 반장으로 뽑힌 소심한 소녀 공수레의 이야기를 다뤘다. 존재감 제로, 자기주장 제로, 자신감 제로인 공수레가 반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렸으며, 더불어 진정한 리더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동심이 사라진대요

안영은 / 파란정원

자연이 만들어 놓은 새동심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점점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작가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 진짜 있는 '새동심 나무루공화국'을 통해 어린이들이 동화를 읽고 직접 찾아보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길 바란다.



마녀 교장과 아주 특별한 시계

김해우 / 크레용하우스

유유네 학교에 새로 온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나눠 주었다. 그건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였다. 주인이 차야만 움직이고, 손목에 차기만 하면 일어날 시각, 학교 갈 시각, 약속 시각을 알려 주었다. 게다가 공부를 열 시간 동안 하면 시계에서 쏟아지는 환한 빛과 함께 해피 월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시계를 받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유는 시계를 받지 않았다. 공부해서 해피 월드에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게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유가 사라지고 마는데...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하엘 엔데 / 한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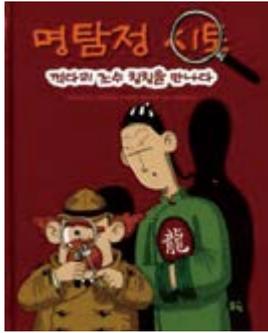
렝켄은 아주 착한 아이이지만, 엄마 아빠가 자기 뜻을 전혀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고민스럽다. 렝켄은 요정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담한다. 요정이 렝켄에게 해결책으로 준 것은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몰래 찻잔 속에 타 먹으면 엄마, 아빠가 렝켄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키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설탕을 넣은 차를 마신 렝켄의 부모님은 정말로 성냥갑 속에 들어갈 만큼 줄어들고 만다. 과연 렝켄은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막난 할미와 로봇곰 덜덜

안오일 / 뜨인돌어린이

질병을 겪는 노인 and 부양가족의 갈등, 노인과 아이의 우정 같은 기존의 동화에서 벗어나, 개성과 막난 할미와 귀여운 로봇곰이 나오는 새로운 구성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실제 노인을 위한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화 속 로봇곰의 존재는 충분히 현실 가능할 법한 이야기로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명탐정 시토

안토니오 G. 이투르베 / 풀빛

시토 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탐정이다. 재능이 뛰어나고 감자 오믈렛을 좋아해서 유명하다. 시토는 중앙경찰서 '알쏭달쏭 이상하고 무척 어려운 사건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다. 어느 날, 중국에서 탐정 기술을 가르쳐 달라며 꺾다리 형사 칭칭이 찾아온다. 시토는 탐탁지 않지만 윗사람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칭칭을 조수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칭칭을 무시하던 시토가 칭칭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새우는 가족

박현숙 / 좋은책어린이

강지는 뜨고 있어도 감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눈, 웃으면 더 작아지는 자기 눈이 못마땅하다. 강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눈이 커질까?'에 온통 쏠려 있다. 검은 사인펜으로 눈이 커 보이게 그려도 보고, 셀로판테이프를 눈꺼풀에 붙여 쌍꺼풀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강지는 과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친구들은 강지와 다르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예쁜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예쁜' 얼굴에 관심 있는 요즘, '예쁜' 얼굴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다.



스마트폰이 먹어 치운 하루

서영선 / 팜파스

어린이 스스로 슬기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기 관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생각 동화책이다. 어린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지면서 일어나는 생활 변화를 실감나게 보여 주어, 어린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다.



아드님, 안녕하세요

강민경 / 좋은책어린이

인사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기도 하고, 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목 뺏뺏 김주한'이란 별명을 가졌던 주한이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목 뺏뺏 주한이의 유쾌한 변신은 동화를 읽는 어린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엄마, 나를 포기하세요!

박현숙 / 좋은책어린이

사교육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속마음과,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 엄마의 진심을 흥미롭고도 명쾌하게 풀어낸다. '엄마 포기시키기'라는 무시무시하고도 어딘지 씩씩한 작전을 펼쳐 나가는 달군이를 보면서, 아이들은 깊은 공감과 재미를 느낄 것이다. 동시에 어른들이 왜 그토록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 어른들의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다.



엄마 몰래

조성자 / 좋은책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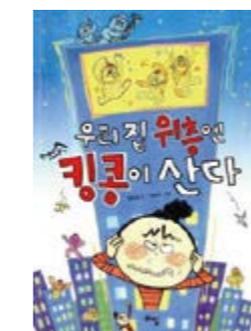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거나, 적어도 상상은 해 보았을 이야기. 엄마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않자, 은지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 지갑에 손을 댄다. 평소에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다 사보았지만 생각만큼 좋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린다.



여자애들은 왜?

원유순 / 좋은책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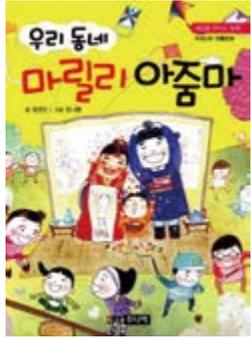
남자아이의 입장에서 여자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갈등과, 갈등을 넘어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여자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남자아이의 생각을 가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남자아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이끌어준다.



우리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

심은경 / 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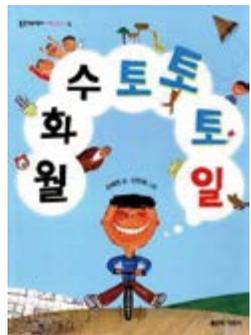
어른들 간의 신경전이나 사회 문제로 비화되던 층간 소음 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 동화이다. 특히 층간 소음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자책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의 억눌린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준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탐색한다는 점이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마릴리 아줌마

함영연 / 킨더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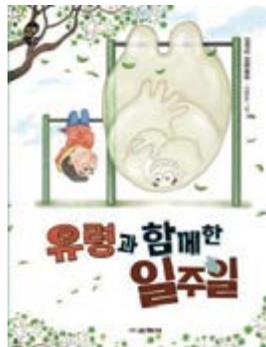
예지네 윗층에 혼자살던 준모삼촌에게 필리핀에서 온 마릴리라는 부인이 생겼다. 갑작스런 외국인 색시에 예지네 마을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보인다. 물론 예지도 필리핀에서 시집온 마릴리 아줌마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준모삼촌은 이런 예지에게 마릴리 아줌마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던 어느날 예지는 엄마 심부름을 다녀오다 놀이터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마릴리 아줌마를 보게 되었다. 예지는 마릴리 아줌마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다. 마릴리 아줌마는 진짜 한국 아줌마가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릴리 아줌마가 생각하는 진짜 한국 아줌마는 어떤 것일까?



월화수토토요일

신채연 / 좋은책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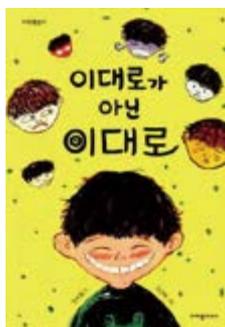
병만이는 학교 가는 날 아침이면 이상하게 배가 슬슬 아파 온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금요일 아침이 되면 조금 덜 아팠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다시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주말은 달랑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데, 학교 가는 날은 다섯 번이나 되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병만이는 우연히 '월화수토토요일 학교'를 알게 된다. 공부도 3일, 토요일도 3일, 일요일은 보너스라고 말하는 아주 환상적인 학교이다. 과연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병만이의 월화수토토요일 학교생활은 어떨까?



유령과 함께한 일주일

김정미 / 함께자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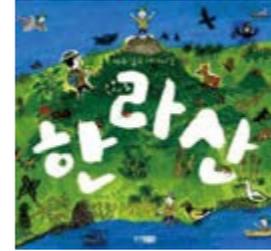
푸른문학상과 MBC 창작동화대상을 수상한 김정미 작가의 첫 장편동화이다. 죽은 지 10년 만에 유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빠와 함께 보낸 선물 같은 일주일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 세상으로 특별 휴가를 나온 유령 아빠와 아들의 비밀스런 교감과 유쾌한 반전을 따뜻하고 익살스럽게 그려 낸 이야기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대호가 아닌 이대로

안오일 / 크레용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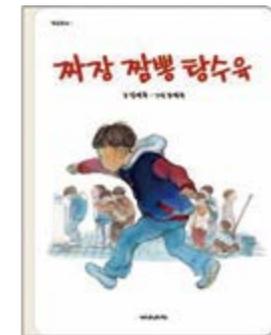
눈을 떠 보니 대로는 캄캄한 나무 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말하는 다람쥐 다람이가 나타나 세 개의 방을 통과한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방에 들어가 진짜 나이테를 찾아야만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계단을 올라 가까스로 첫 번째 방에 도착한 대로 앞에 커다란 애벌레가 나타나 말한다. "내 이름은 애룡이다. 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넌 이 방을 나갈 수 없어." 과연 대로는 과제를 풀고 마지막 방에 들어가 진짜 나이테를 찾을 수 있을까?



제주섬의 어머니산 한라산

김은하 / 웅진주니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한라산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림책이다. 온전히 한라산 이야기로 채워져 그저 어디에 있는지 높이가 얼마인지 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서 훨씬 다채롭고 풍성한 한라산을 보여주고 들려준다.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 재미마주

중국 음식점 집 아이 종민이가 전학을 와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만 놀이를 통해 따돌림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는 창작동화. 학교 화장실에서 왕, 거지 놀이를 벌이던 아이들이 거지 자리에 선 종민이에게 거지라고 놀린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종민이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 짜장을 넣은 커피 병을 보고 다른 아이들은 '거지'라 그런다며 또 놀린다. 다시 쉬는 시간이 되어 화장실에 간 종민이. 왕 자리에만 줄서 있는 아이들 틈을 비집고 큰 소리로 "짜장, 짬뽕, 탕수육"을 외치며 뛰어다니는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요즘 아이'의 지혜로움이 돋보인다.



춤추는 책가방

송언 / 좋은책어린이

'짜깁끼리 손을 잡고 다녀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해 고민하는 초등 1학년 아이의 학교생활 이야기. 학교를 통해 처음 단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 초등 1학년 주인공은 친구들의 시선과 놀림을 신경 쓰다가 가장 친한 단짝 친구와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곧 주변의 시선과 놀림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의 제목 '춤추는 책가방'은 자신감과 우정을 되찾은 아이의 기쁨과 즐거움을 대변하고 있으며, 실제 초등학교 교사인 작가는 신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



칭찬 한 봉지

정진 / 좋은책어린이

소통의 방법을 몰라 외로웠던 주인공이 조금씩 세상과 가까워지는 이야기이다. 실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 할 말만 토해내는 보통 아이 모습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밝은 문체와 경쾌한 삽화로 그려냈다.

콧구멍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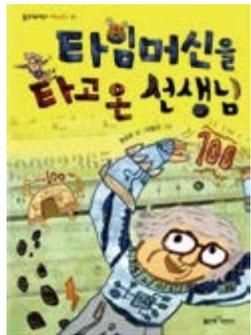
콧구멍 왕자
김희경 / 사계절

콧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좁아 슬픈 두랑 왕자의 파란만장 성장기를 담은 작품으로, 가상의 공간 '두랑스텐'에서 콧구멍이라는 다소 익살스러운 소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속도감 있게 그렸다.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던 왕자가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발견하고 자아를 찾아 가는 모습이 흥미진진하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 시공주니어

1972년 처음 출간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이 작품은 참자아와 희망을 노래하는 두 애벌레의 이야기이다. 단순히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노랑 애벌레와, 애벌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른 채 무작정 다른 애벌레들을 따라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호랑 애벌레. 결국 이 두 애벌레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선생님
원유순 / 좋은책어린이

새 학년 첫날, 텔런트처럼 예쁜 담임 선생님을 기대한 초등 2학년 아이들의 기대는 이정신 선생님의 등장으로 와르르 무너진다. 이정신 선생님은 백발에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은 할머니 선생님이었던 것. 게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백 년 전에 왔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아우성을 치면서도, 고개를 가웃하며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선생님을 바라본다. 할머니 선생님과 까탈스러운 2학년 아이들은 과연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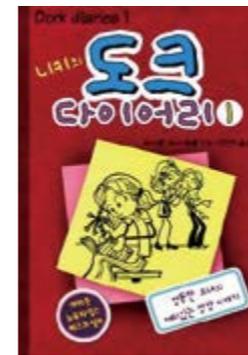
내 이름은 뽀뽀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 시공주니어

쫘쫘 땀아 옆으로 짝 뻗은 빨간 머리, 주근깨투성이 얼굴, 짹짹이 긴 양말에 자기 발보다 두 배는 큰 구두. 커다란 말도 아무렇지 않게 번쩍 들어 올리고, 못된 도둑들을 혼내 주고, 학교에도 안 가고, 선생님과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는 뽀뽀 롱스타킹. 인생이 너무나 즐겁다는 이 자유분방한 어린이의 탄생은 20세기 어린이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꼽아도 전혀 손색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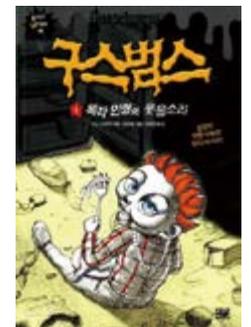
개고생
이창숙 / 상상의힘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개를 찾아가는 힘든 여정을 1인칭의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풀어낸 표제작 「개고생」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심리가 잘 드러나는 가운데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는 「대장 마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8편의 단편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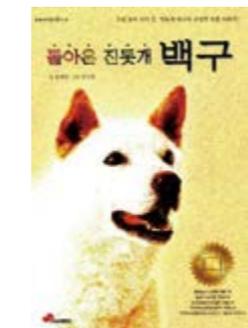
니키의 도크 다이어리
레이첼 르네 러셀 / 미래주니어

평범하지만 재치 넘치는 열네 살 소녀 니키의 재미있는 성장 일기를 담고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소녀의 고군분투한 일상을 함께 겪으면서, 주인공의 의지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밝은 성격에 동화되어 간다. 또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일기장 곳곳의 재미있는 그림과 만화들도 어린이 독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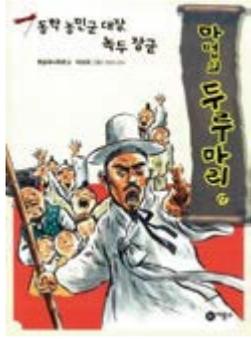
구스범스
R. L. 스타인 / 고릴라박스

어린이의 불안을 공포로 표현한 현대 어린이 호러 걸작 '구스범스' 시리즈. 매 권마다 아이에게 친숙한 일상과 감정이 서서히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공포의 무대는 집, 학교, 여름캠프, 우리 동네 같은 아이 생활에 밀접한 공간이다. 공포의 주 소재 역시 형제자매 간의 질투, 친구들의 놀림에 대한 분노, 집을 떠나는 두려움 등 아이 마음속에 늘 자리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처키 같은 저주인형, 벗겨지지 않는 악마 가면, 너무나 인간 같은 유령 등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익숙한 괴물들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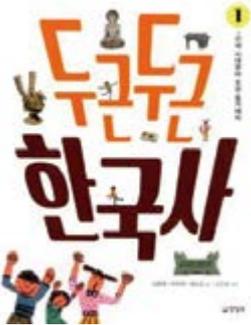
돌아온 진돗개 백구
송재찬 / 대교출판

엄마 품처럼 따뜻한 진도를 떠나 머나먼 도시로 팔려간 진돗개 백구. 크고 좋은 새 집, 인심 좋은 새 주인을 만났지만, 백구의 마음 속에는 남쪽 섬 진도와 서영이,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하다. 마침내 바다 찾아, 옛 주인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는 백구. 떠돌이가 되어 낯선 도시를 헤매이는 백구 앞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동학 농민군 대장, 녹두 장군
햇살과나무꾼 / 비룡소

우리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는 역사 모험 동화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한국사 지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17권에서는 올해로 봉기 120주년을 맞은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동학 농민 혁명 연구자로 현재 충북학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양식 박사가 감수를 맡았다.



두근두근 한국사
배성호 / 양철복

2015년 개정된 초등 사회 교과 과정에 맞추어 새롭게 쓴 어린이 역사책.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사전 학습을 위한 1편,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읽기 전에 보는 2편, 전2권으로 한국사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다.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60가지 주제를 '이미지'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다.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 위원, 학예연구사, 역사책 전문 편집자로 구성된 세 명의 집필진이 함께 썼다.



명탐정 교실
윤재중 / 소나무

얼굴만 보고 이름을 맞춰 보라는 이상한 선생님이 나타났다. 당황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맞히더니, 선생님 자신의 이름은 명탐정이었다. 명탐정이라고? 그러면서 명탐정 선생님은 동현이 반인 5학년 2반은 명탐정 교실이었다. 모두가 명탐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아이들은 명탐정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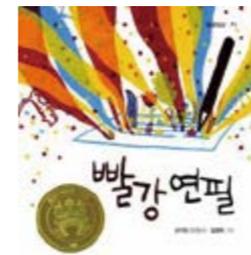
몽실언니
권정생 / 창비

한국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어린 몽실이 부모를 잃고 동생 난남이를 업어 키우며 겪는 고난과 성장을 그린 작품으로서, 1984년 초판 출간 이래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두루 읽힌 한국 아동문학의 명실상부한 고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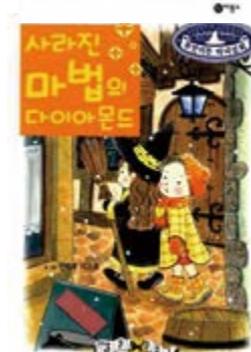
뱀파이어 시스터
시에나 머서 / 가람어린이

13살 소녀 올리비아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자신과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소녀, 아이비를 만난다. 알고 보니 둘은 같은 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각기 다른 곳으로 입양된 쌍둥이 자매였다. 밝고 쾌활한 치어리더 소녀 올리비아와 달리 아이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꾸미고, 창백한 피부에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는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의 소녀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너무나 다른 성격과 패션 감각을 지닌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역할을 바꿔 서로의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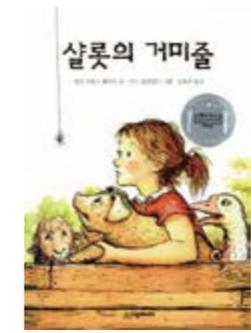
빨강 연필
신수현 / 비룡소

무엇이든 술술 진짜처럼 써내는 요술 연필을 갖게 된 민호의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성장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빨강 연필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 나가며, 민호는 마음을 열고 진심을 말하는 법을 배워 나간다.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진심'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글쓰기의 기본 태도를 전한다.



사라진 마법의 다이아몬드
안비루 야스코 / 예림당

'마법의 정원 이야기'를 지은 일본 작가 안비루 야스코의 '무엇이든 마녀상회' 시리즈 5권. 옷 수선집의 주인이자 바느질 마녀로 유명한 실크와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소녀 나나 그리고 실크 곁에서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 고양이 코튼이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살롯의 거미줄
E. B. 화이트 / 시공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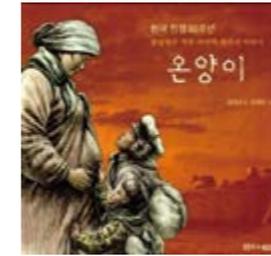
단지 함께 태어난 형제보다 작다는 이유로 죽게 된 월버를 농장 주인의 딸 편이 구해준다. 얼마 후, 월버는 다른 농장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외로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월버 앞에 상냥한 거미 살롯이 나타난다. 월버는 자신의 운명이 햄이나 베이컨이 될 것임을 알게 된다. 절망에 빠진 월버를 위해 살롯은 거미줄로 멋진 글을 새겨 준다. '대단한 돼지', '근사한 돼지', '눈부신 돼지', '겸허한 돼지'... 월버는 살롯이 쓴 글과 같은 돼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결말이 독자를 기다린다.



소년 명탐정 정약용

한이 / 청어람주니어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실학자로서의 정약용이 아닌 호기심 많고 재치 넘치는, 인간미가 드러나는 소년 명탐정으로서의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실감 나게 전해 주는 책일 뿐 아니라 스토리가 탄탄한 추리 소설로서도 큰 재미를 준다.



온양이

선안나 / 샘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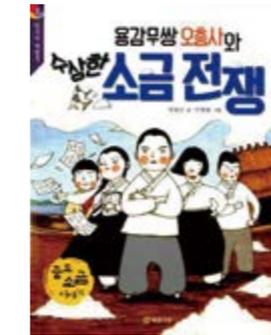
한국 전쟁 당시 흥남철수가 이루어졌던 1950년 12월 중순, 고향을 떠나 피란길에 오른 아홉 살 소년 명호네 가족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수만 명의 피란민들을 실어 나른 구조선 '온양호'에 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고통스럽고 참혹한 전쟁 한가운데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희망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허교범 / 비룡소

제1회 스토리킹 수상작. 국내 최초로 '어린이 심사위원회'를 도입한 스토리킹은 최종 본심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당선작을 가려내게끔 기획된 국내 최초의 문학상이다. 올해의 수상작인 이 작품은 초등학교 5학년 문양이가, 스무 가지 질문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스무고개 탐정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짜릿한 사건을 그린 이야기다.



용감무쌍 오총사와 수상한 소금 전쟁

이경순 / 개암나무

1960년대 이후 명맥이 끊긴 우리 전통 소금 자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창작 동화이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 천일염이 도입된 이유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면서 귀한 소금 자염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한다.



시간 가게

이나영 / 문학동네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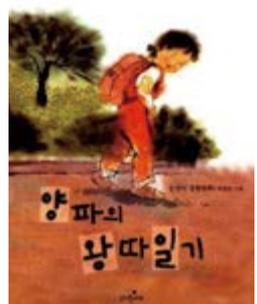
입시라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지금'의 삶을 유예시킨 이 시대의 초등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이들은 과연 이대로 행복할까?'라는 깊이 있는 질문을 건네는 작품이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기초로 한 시기적절한 문제 제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품고 힘껏 뻗어나가는 서사의 독창성과 박진감이 돋보인다.



용선생의 시골벽적 한국사

금현진 / 사회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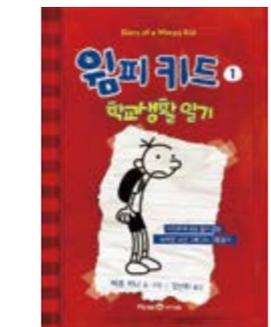
다른 역사책들이 으레 구석기 시대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과 달리, 역사의 개념과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용선생과 역사반 아이들을 따라 한반도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를 탐험해가면서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단군 신화부터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여러 나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양파의 양파일기

문선이 / 주니어파랑새

정화는 같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미희라는 친구와 친하고 싶다. 그래서 양미희를 따르는 친구들의 그룹인 '양파'에 들고 싶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화는 양파의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미희와 친하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미희로부터 양파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고 너무 신이 난다. 양파 친구들이 반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양파에 끼었다는 기쁨에 감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양파 내에 있는 친구까지 따돌리는 일이 생기자 정화의 마음은 점점 괴로워져 간다.



임피 키드

제프 키니 / 아이세움

시니컬한 중학생 그레그의 일상을 개성 있는 흑백 일러스트와 재치 넘치는 문장으로 그려낸 어린이 문학 시리즈다. 출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중학생 소년 그레그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일기 쓰기를 시작한다. 올해 그레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학교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그는 학생 선거에 나가고, 레슬링을 배우고, 연극 공연을 하고, 학교 안전 순찰대에 들어가고, 학교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한다. 과연 그레그는 그렇게 바라 마지않던 인기 짱이 될 수 있을까?



자전거 도둑
박완서 / 다림

작가가 79년에 쓴 어른을 위한 동화집 <달같은 달같은 값으로>에서 추려 묶은 동화집. 도서출판 다림에서 동화와 그림을 아울러 새로 꾸며 출판하였다. 총 6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두운 시절에 마음을 달래고자 썼다는 작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실린 동화들은 한결같이 비판과 풍자를 동화 속 깊이 감추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과 농촌민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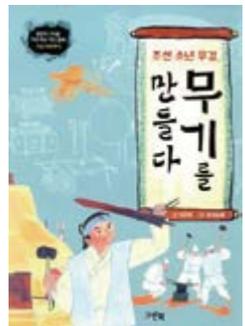
자존심
김남중 / 창비

여러 동물들과의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만남을 다루고 있는 일곱 편의 이야기가 실렸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굳어지지 않고 쉽고 담백한 문장으로 쓰여 졌다. 말은 안 듣고 지저분한 냄새만 풍기는 진돗개, 모이를 주는 주인집 아이를 경계하는 백한, 주인 집 마당을 제 집인 것처럼 거만하게 다니는 칠면조와 거위들 등 개성 강한 동물들과 일곱 살 아이에서부터 20대 초반의 군인까지 여러 연령대의 인물들이 등장해 이야기를 꾸며 나간다.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제로니모 스틸턴 / 사파리

첫 장을 넘기면 가장 먼저 색감이 풍부한 그림이 큼지막하게 눈에 들어온다. 유쾌한 그림 분위기처럼 <제로니모의 환상 모험> 시리즈는 깔깔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명랑하고 발랄한 모험 판타지다. 뚝뚝해 보이는 두 눈, 귀여운 초록색 양복, 나비 같은 코안경을 걸친 특별한 생쥐 제로니모 스틸턴이 바로 이 특별한 모험의 주인공. 옛이야기의 다양하고 친숙한 상상력을 접할 수 있는, '21세기형 어린이 기사 소설'이라고 할 만하다.



조선 소년 무걸, 무기를 만들다
이규희 / 그린북

조선 시대의 무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동화이다. 이야기의 주인공 무걸이는 정묘호란 때 오랑캐들의 손에 가족을 모두 잃은 아픔을 겪는다. 당시 무력하게 당하는 조선의 모습을 본 무걸이는 무기를 만들어 힘을 키우는 것이 장차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무걸이의 생각과 무걸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조선 시대의 다양한 무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J. M. 바스콘셀로스 / 동녘주니어

사랑스런 꼬마 악동 제제는 가난과 무관심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선사한다. 못 말리는 장난기와 혼자서 글을 떼 영민함, 흑인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는 도로펠리아와 빵을 나눠 먹는 착한 마음씨, 동물이나 나무 등 세상의 사물과 대화하는 상상력과 감수성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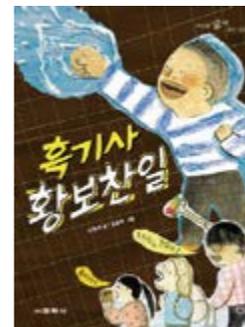
타이거 수사대 T.I.4 에피소드
토마스 브레치나 / 조선북스

탐정 추리 동화로 독자들이 책과 함께 제공되는 탐정 키트의 물품들로 단서를 직접 찾아내고 이야기를 읽어나가도록 구성했다. 탄탄한 스토리와 빠른 전개, 놀라운 반전과 끊임없이 등장하는 수수께끼가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주인공들은 사춘기가 막 시작된, 호기심 많고 또래 집단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즐기며, 컴퓨터를 좋아하는 초등 고학년이다. 내용 역시 그 또래 아이들이 겪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J. K. 롤링 / 문학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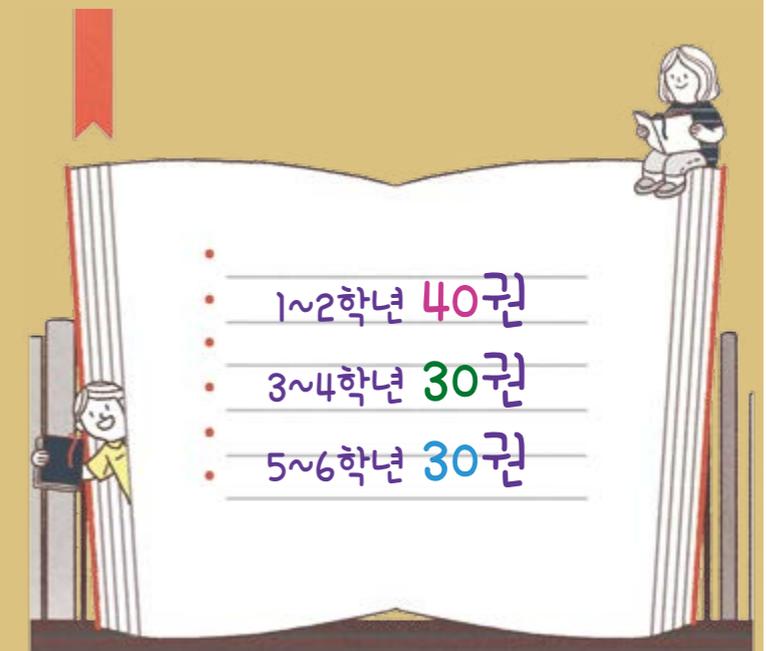
소년 마법사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독특한 이야기로 책이 출간될 때마다 무단결석으로 몸살을 앓는 학교, 어른들까지 밤잠을 설치게 하는 해리 포터 시리즈는 2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1천만 부 이상 팔려나는 '해리 포터'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독서 열풍으로 들끓게 만드는 판타지 소설이다.



흑기사 황보찬일
소중애 / 함께자람

3학년이 시작되는 첫날, 3학년 3반 교실에 세 명의 아이들이 전학 왔다. 부모가 인도에 있는 우연비, 말을 더듬는 최경호, 그리고 충남에서 온 황보찬일. 찬일이는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와 같이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엄마는 찬일이가 세련된 서울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때 빼고 광내기 작전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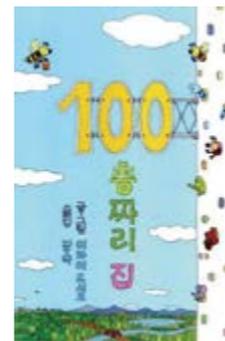
제주도내 초등학교 도서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최다대출도서목록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1	1·2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	1·2	강아지똥	권정생	길벗어린이
3	1·2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	다섯수레
4	1·2	구름빵	백희나	한솔교육
5	1·2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	정승각	초방책방
6	1·2	너도 괴물이니?	쫄우쓰윈	푸른날개
7	1·2	노란 샌들 한짝	카렌 린 윌리엄스	맑은가람
8	1·2	눈물바다	서현	사계절출판사
9	1·2	대신 사과하는 로봇 처음 사과하는 아이	코스타스 하랄라스	책속물고기
10	1·2	동강의 아이들	김재홍	길벗어린이
11	1·2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
12	1·2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	송언	사계절출판사
13	1·2	만희네 집	권윤덕	길벗어린이
14	1·2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시공사
15	1·2	반쪽이	이미애	보림
16	1·2	벤의 트럼펫	레이첼 이사도라	비룡소
17	1·2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사계절
18	1·2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호백	재미마주
19	1·2	손톱 깨물기	고대영	길벗어린이
20	1·2	솔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	길벗어린이
21	1·2	수박 수영장	안녕달	창비
22	1·2	안녕, 난 개미야	스티브 파커	바다어린이
23	1·2	알사탕	백희나	책읽는곰
24	1·2	앗! 따끔!	국지승	시공주니어
25	1·2	연이네 설맞이	우지영	책 읽는 곰
26	1·2	열두 공주의 비밀	나희덕	시공주니어
27	1·2	오필리아의 그림자 극장	미하엘 엔데	베들북
28	1·2	왜 띄어 써야 돼?	박규빈	책과공나무
29	1·2	용돈 주세요	고대영	길벗어린이
30	1·2	우리들은 자란다	이은희	길벗어린이
31	1·2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비룡소
32	1·2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김미혜	사계절
33	1·2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문치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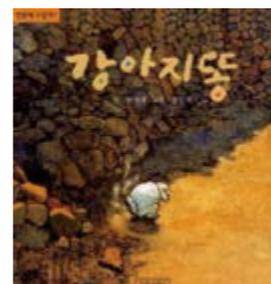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34	1·2	지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35	1·2	책벌레	권재희	노란상상
36	1·2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다니엘 포세트	비룡소
37	1·2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책읽는곰
38	1·2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토토북
39	1·2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시공주니어
40	1·2	황소 아저씨	권정생	길벗어린이
41	3·4	개구리 눈으로 오세요	여정은	돌베개어린이
42	3·4	귀신 선생님과 진짜 아이들	남동윤	사계절
43	3·4	그림 도둑 준모	오승희	낮은산
44	3·4	나 오늘부터 일기 쓸 거야!	방미진	청어람주니어
45	3·4	나보다 작은 형	임정진	푸른숲
46	3·4	난폭한 지구	자운영	트레버 데이
47	3·4	내 짝궁 최영대	채인선	재미마주
48	3·4	두뇌를 깨우는 수수께끼 250	김은빈	꿈꾸는달팽이
49	3·4	만년샤쓰	방정환	길벗어린이
50	3·4	사투리의 맛	류호선	사계절
51	3·4	설탕 따라 역사 여행	김곰	너머학교
52	3·4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하섭	길벗어린이
53	3·4	슈퍼 걸스!	로완 맥올레이	비룡소
54	3·4	신기한 스쿨버스	피비에스	스크린에듀케이션
55	3·4	신나는 열두 달 명절 이야기	우리누리	어린이중앙
56	3·4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셸 실버스타인	시공주니어
57	3·4	아름다운 가치 사전	채인선	한울림어린이
58	3·4	안녕, 전우치?	하민석	보리
59	3·4	어린이를 위한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	청조사
60	3·4	열두 살 백용기의 게임 회사 정복기	이송현	비룡소
61	3·4	엽기과학자 프래니	짐 벤튼	사파리
62	3·4	영양 만점! 알록달록 색깔 음식	김진희	토토북
63	3·4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주니어김영사
64	3·4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재미마주
65	3·4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66	3·4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트롤	미래엔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67	3·4	치키치키 쿵푸치킨	신디 마르코	고릴라박스
68	3·4	쾌걸 조로리	하라 유타카	을파소
69	3·4	쿠키 전쟁	정란희 외	크레용하우스
70	3·4	회장이 되고 싶어	송아주	상수리
71	5·6	13층 나무 집	앤디 그리피스	시공주니어
72	5·6	구성애 아줌마의 뉴 초딩 아우성	구성애	올리브M&B
73	5·6	귀뚜라미와 나와	권태응	보리
74	5·6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재미주의
75	5·6	길모퉁이 행운돼지	김종렬	다림
76	5·6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시공주니어
77	5·6	꿀벌 마야의 모험	발데마르 본젤스	비룡소
78	5·6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	김향이	웅진주니어
79	5·6	나쁜 말 팔아요	페드로 마냐스 로메로	책과콩나무
80	5·6	남녘과 북녘의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보는 보리 국어사전	토박이 사전 편찬실	보리
81	5·6	내가 진짜 기자야	김해우	바람의아이들
82	5·6	노잣돈 값기 프로젝트	김진희	문학동네
83	5·6	다랑쉬오름의 슬픈 노래	박재형	베들북
84	5·6	담배 피우는 엄마	류호선	시공주니어
85	5·6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절
86	5·6	마법의 시간여행	메리 폼 어즈번	비룡소
87	5·6	매직 키드를 위한 마술 대백과	해바라기	지경사
88	5·6	문화재, 이름도 모르면서	이재정	나는책
89	5·6	빨간 머리 앤	오주영	그레이트
90	5·6	신과 거인의 이야기 북유럽 신화	에드거 파린 돌레르	시공주니어
91	5·6	양파의 왕따 일기	문선	파랑새어린이
92	5·6	어린이 사회 형사대 CSI	고희정	가나
93	5·6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외	보리
94	5·6	옛날엔 이런 직업이 있었대요	우리누리	어린이중앙
95	5·6	웜피키드	제프 키니	푸른날개
96	5·6	자전거 도둑	박완서	다림
97	5·6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시공주니어
98	5·6	철학교양이 요루바	김용규	주니어김영사
99	5·6	할머니의 레시피	이미애	아이세움
100	5·6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J.K. 롤링	문학수첩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 북뱅크

일본도서관협회 선정도서. 각기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는 100층 짜리 건물의 10층씩을 오르며 1에서 100까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림책이다. 등장하는 10종류의 동물-생쥐, 다람쥐, 개구리, 무당벌레, 뱀, 꿀벌, 딱따구리, 박쥐, 달팽이, 거미-의 특징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오묘조묘하게 그려놓아 읽는 재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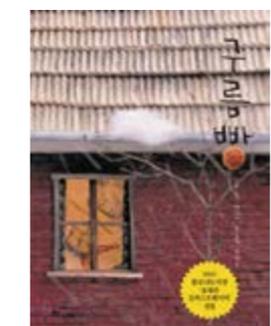
강아지똥
권정생 / 길벗어린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강아지똥이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내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서 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다. 1996년 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사랑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우리 그림책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그 속에 담긴 사랑과 나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성실 / 다섯수레

이제 막 글을 읽기 시작한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된 책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생태학자 이태수가 펼쳐 보이는 봄부터 겨울 그리고 이듬해 봄까지의 장면 하나하나에 개구리의 한살이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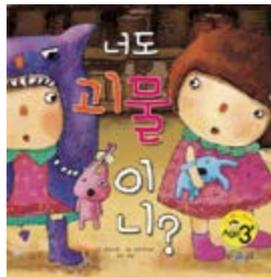
구름빵
백희나 / 한솔수북

비 오는 날 아침 작은 구름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아이들은 신기해서 엄마에게 구름을 갖다 주고 엄마는 작은 구름을 반죽해 빵을 굽는다. 잘 구워진 구름빵을 먹은 엄마와 아이들은 구름처럼 두둥실떠오른다. 2005년 볼로냐 국제도서전 픽션 부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힌 작품. 구름이 빵이 되고, 빵을 먹은 사람이 하늘을 나는 기발한 발상과 그 발상을 공간감 있게 표현한 특이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독특하다.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정승각 / 초방책방

삼사리를 소재로 한 우리 그림책. 단청과 전통 자수를 보는 듯한 치밀한 그림,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를 녹여낸 탄탄한 이야기, 일러스트의 그림을 섬세하게 살려낸 인쇄까지 훌륭하다. 나라를 위해 불을 가져왔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삼사리의 이야기가 조금 슬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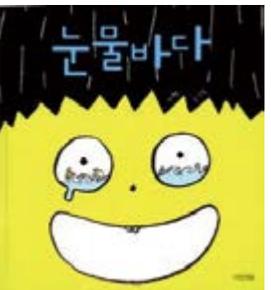
너도 괴물이니?
쭈우쓰원 / 푸른날개

아이들의 정서 교육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책. 쉽고 간결한 단어를 사용한 이 책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괴물을 아이의 시선에 바라보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작은 일에도 떼를 쓰고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노란 샌들 한 짝
카렌 린 윌리엄스 / 맑은가람

전쟁으로 집과 가정을 잃은 아프간 난민촌 소녀 리나와 페로자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로, 난민촌의 어려움과 아프간 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또한 전쟁으로 피폐해진 삶 가운데 피어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전쟁, 기아, 환경 등의 문제는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 독자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준다.



눈물바다
서현 / 사계절

아이들의 하루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 주는 그림책이다. 요즘 아이들의 하루 풍경이 그려지며, 눈물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주인공은 눈물을 펄펄 쏟아내어 상상의 바다를 만든다. 눈물바다는 주인공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끌어간다. '나'는 사람들이 허우적대는 눈물바다에서 노를 젓기도 하고 급류를 타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건져내준다. 마음이 개운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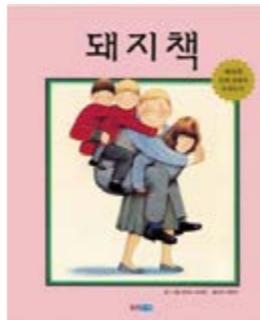
대신 사과하는 로봇 처음 사과하는 아이
코스타스 하랄라스 / 책속물고기

주인공 올렌다와 대신 사과하는 로봇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동화다. 사과하는 로봇이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사과의 힘을 재미나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준다. 또한 어른들에게는 사과를 안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썽쟁이 올렌다가 저절로 '미안해'란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읽으며 진심어린 사과가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행동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동강의 아이들
김재홍 / 길벗어린이

강가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순이와 동이. 어머니는 장날을 맞아 깨도 팔고 콩도 팔러 장터에 갔었다. 돌아올 때에는 순이의 색연필과 동이의 운동화를 사 오실 것이다. 오누이는 큰새와 아기곰에게 엄마가 어디까지 왔는지 묻기도 하고, 물수제비를 뜨기도 하면서 엄마를 기다린다. 지은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화가로 실제 동강의 풍경을 유화로 옮긴 그림들이 생생하다.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 웅진주니어

가정 내에서 여성이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칫 어린이책에서 표현하기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군더더기 없고 유머러스한 글, 치밀하게 계산되어 볼거리가 풍성한 그림과 화면 구성으로 진지한 주제를 설득력 있고 쉽게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글과 그림에서 물씬 풍기는 유머와 위트는 그림책 읽는 재미를 한층 더해 줘 정말 완벽하게 매력적인 그림책이라 할 만하다.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
송언 / 사계절

20여 년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실제 아이들의 생활을 이야기에 담아온 작가 송언과 구김살 없고 해맑은 그림으로 아이들 마음을 표현해온 화가 서현이 1학년 아이들의 이야기를 꾸렸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곱 살답게, 일곱 살이 가진 힘으로 학교에 적응해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알맞게 담겼다. 그지없이 서툴지만 천진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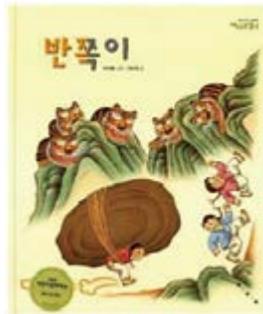
만희네 집
권윤덕 / 길벗어린이

한국화의 색감이 살아 있는 책이다. 좁은 연립 주택에서 살다가 할머니 댁으로 이사간 만희가 옛보는 집안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이 정성어린 그림과 색감 속에 살아 있다. 안방이며 부엌, 광, 장독대, 뒤꼍, 화단, 현관, 만희방, 목욕탕, 옥상, 아빠방, 마루 등 온 집안을 넘나들며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눈여겨보게 한다.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 시공주니어

몸에 반짝이 비늘이 많은 물고기가 예쁜 것을 뽐내다가 친구를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짝이 비늘을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깔보고 좋은 것을 혼자만 독차지하면 자기도 괴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반쪽이
이미애 / 보림

눈도 귀도 팔도 하나밖에 없는 반쪽이는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마침내 어여쁜 아내를 얻는다는 이야기다. 반쪽이가 형들로부터 당하는 세번의 위기, 영감님 집에서 딸을 업고 나오기까지의 삼일 밤의 상황 등 세 번의 반복적 형식미가 잘 드러나 있다. 원근법이 무시된 한국 민화의 독특한 표현기법이 잘 살아있다.



벤의 트럼펫
레이첼 이사도라 / 비룡소

저녁이면 벤은 지그재그 재즈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상상의 트럼펫을 분다. 벤의 꿈은 클럽의 연주자처럼 멋진 트럼펫 연주를 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트럼펫을 부는 벤을 손가락질하며 놀리지만, 결국 벤은 재즈 클럽의 트럼펫 연주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아주 멋진 선물을 받는다.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 사계절

예민한 아이와 괴팍한 선생님이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재치 있게 그려 낸 작품이다. 피터 브라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 간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피터 브라운은 바비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선생님의 모습을 세심하게 드러낸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호백 / 재미마주

한 수평아리는 다른 병아리들보다 힘이 세었다. 어느덧 수평아리는 늙은 수탉으로 성장하였고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 되었다. 그러나 근육의 힘이란 한결 같지 않은 법. 수탉은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고 실의에 빠지게 된다. 이 때, 수탉의 부인이 다가와 건강하게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 그 누구보다 힘이 센 아들들, 그리고 알을 어느 암탉들 보다 많이 낳는 딸들을 보여 주면서 여전히 그가 제일 힘센 수탉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



손톱 깨물기
고대영 / 길벗어린이

손톱을 깨무는 나쁜 버릇을 엄마의 애정과 남매간의 협동으로 차츰 고쳐나가는 내용의 동화. 지원은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손톱을 물어 뜯는 버릇이 생긴다. 그러던 어느 날 쇼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지원은 엄마에게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들리고 야단을 맞는다. 엄마는 지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요오드를 발라주시며 지원을 격려하지만 하루 아침에 나쁜 버릇을 고치기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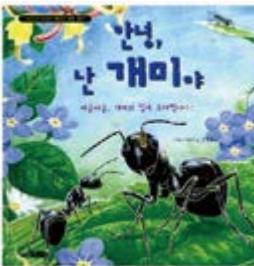
술이의 추석 이야기
이억배 / 길벗어린이

추석날 아침 고향으로 떠나는 술이네 가족들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추석 명절의 풍경을 그려낸 그림책.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 길거리의 풍경들이 술이의 하루를 통해 자세하게 그려졌다.



수박 수영장
안녕달 / 창비

햇볕이 짙은 여름날, 커다랗고 시원한 수박에 들어가서 논다면? 한적한 시골 마을, 해마다 여름 햇볕이 한창 뜨거워지면 '수박 수영장'이 개장한다. 엄청나게 큰 수박이 "쩍" 하고 반으로 갈라지면 논일을 하던 아저씨들도, 고무줄놀이하던 아이들도,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들도 수박 수영장으로 달려간다. 커다란 수박은 수영장도 되고 모래사장도 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함께 모여 무더위를 즐긴다. 시원하고 호방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책.



안녕, 난 개미야
스티브 파커 / 바다출판사

개미의 일기장으로 살펴보는 개미의 생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어린이를 위해 펴낸 과학 그림책을 번역했다. 딱딱한 과학책에서 벗어나, 스크랩 형식으로 꾸며진 지면을 통해,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쓴 개미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중간 사진과 스크랩한 기사, 파란 잉크로 그린 그림, 낙서, 식물 표본, 클립으로 끼워 놓은 주변 지도, 음식물이 떨어져 만든 얼룩 등이 등장하면서 진짜 개미의 일기책을 읽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알사탕
백희나 / 채일네곰

친구들은 만날 자기들끼리 논다. 오늘도 동동이는 혼자 구슬치기를 하며 논다. 새 구슬이 필요해서 문방구에 간 동동이는, 구슬 대신 알사탕을 골랐다. 박하 향이 진한 체크무늬 알사탕을 입에 넣으니 갑자기 소파가 말을 한다. 점박이 사탕을 먹고는 8년 만에 강아지 구슬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 저녁 내내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빠처럼 까칠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잠이 들자, 설거지하는 아빠의 등 뒤로 잔소리 대신 진심이 흘러나온다. 알사탕이 만드는 공감, 용기, 성장이 따뜻하고 행복하다.



앗! 따끔!
국지승 / 시공주니어

병원에 가기 싫은 아이의 마음이 잘 드러난 유아용 그림책. 병원에 가기 싫어서 요리조리 꾀를 내는 아이의 마음을 재치 있는 상상으로 표현했다.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병원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이끈다.



연이네 설맞이
우지영 / 채일네곰

우리의 전통적인 설맞이 풍속을 생생하게 되살려 낸 그림책이다. 연이네 식구들은 선달 보름 무렵부터 설빔을 짓고 세밀 대목장에 가서 제수를 마련하고 설음식을 장만하며 설 준비를 한다. 그리고 선달그믐이 되자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온 집 안에 불을 환히 밝힌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율놀이도 하면서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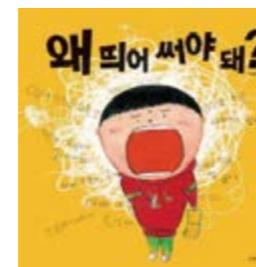
열두 공주의 비밀
나희덕 / 시공주니어

아름다운 열두 공주의 구두가 아침만 되면 모두 닳아 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왕은 사흘 안에 공주들의 비밀을 알아내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다. 많은 왕자들이 실패한 뒤 찾아온 청년은 왕을 찾아오는 길에 만난 노파의 말대로 포도주를 몰래 쏟아 버리고 투명 망토를 걸친 후 열두 공주의 뒤를 밟는다. 과연 청년은 열두 공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옛이야기로, 러시아 화가의 그림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오페리아의 그림자 극장
미하엘 엔데 / 베틀북

도시 문명의 발달 속에서 밀려나는 주인공 오페리아의 연극 인생이 그림자의 어두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동화적인 구조 속에 이야기를 풀어놓아 아이와 어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왜 띄어 써야 돼?
박규빈 / 길벗어린이

오늘도 띄어쓰기 때문에 선생님께 야단맞은 아이는 띄어쓰기 따위는 모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쓰기 연습을 시작한다. 아이가 '엄마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쓰는 순간 진짜로 엄마가 가방으로 빨려 들어가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띄어쓰기가 무척 어렵다. 이 책은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유쾌한 에피소드와 그림으로 풀어냈다.



용돈 주세요
고대영 / 길벗어린이

토요일 오후, 병관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 대형 마트에 간다. 그리고 장난감 파는 곳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새로 나온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단호하다. 그러자 병관이는 외친다. “그럼, 나도 용돈 줘요!” 병관이는 과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게 될까?



우리들은 자란다
이은희 / 길벗어린이

막연했던 성장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 가며 아이가 성장을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자라나면서 내 몸과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잘 자라려면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되짚어 준다. 아이들은 책에 나오는 친구 같은 아이의 따뜻한 시선을 따라 자신을 탐색하고, 비교하고, 단계적인 과정을 짚어 가며 성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해 나갈 수 있다.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 비룡소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치러진 이모의 결혼식을 선명하고 개성넘치는 그림으로 담아냈다. 이국적인 그리스의 풍경, 우리와는 다른 결혼 풍습과 외국인 이모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아이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렸다.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김미혜 / 사계절

재미있는 옛 이야기 속 호랑이와 함께 떠나는 저승 여행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다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의 뒷이야기다. 호랑이는 저승사자에게 잡혀가 가마솔지옥, 얼음지옥을 지나 황소가 헛바닥에 쟁기질을 하는 경설지옥, 칼산지옥, 독사가 우글거리는 지옥까지 온갖 지옥을 여행하게 된다. 마치 불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일러스트가 매우 인상적인 그림책이다.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먼치 / 비룡소

안데르센의 동화 「돼지치기 소년」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현대적으로 뒤집어 읽은 동화. 왕자가 못된 용에게 붙잡힌 공주를 구한다는 전통 동화 양식을 뒤집어 공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자기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임을 선언하는 당당한 현대판 공주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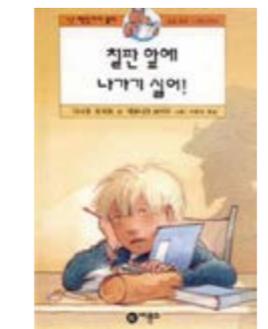
지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 북뱅크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색다른 감각의 숫자 그림책. 각기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지하 10층, 20층, 30층... 이렇게 10층씩을 내려가는 사이 저절로 1에서 100까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림책이다. 등장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그려내 읽는 재미를 한층 더 느끼게 해 준다. 또한, 그림을 통해 각 동물들의 생태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책벌레
권재희 / 노란상상

도서관에는 책벌레뿐만 아니라 나방, 하루살이 등 다른 친구들도 함께 살았다. 다른 친구들은 높은 곳을 훨훨 날며 재밌게 놀았지만, 날지 못하는 책벌레는 함께 놀 수 없었다. 하지만 책벌레는 마냥 외롭지는 않았다. 도서관에는 재밌는 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책벌레는 거미줄에 걸려 바둑대는 파리를 도와주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책벌레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다니엘 포세트 / 비룡소

칠판 앞에 나가 발표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이다. 소심한 마음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떤 훈련이나 어른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 / 책임는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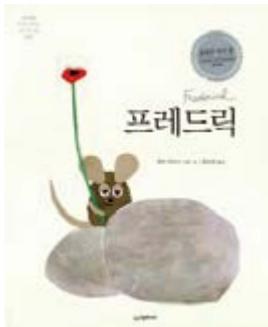
아이들이 성장하고 유치원과 학교 등 작은 사회에 나아가면서 마음속에 지녀야 할 가치들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쿠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상황 속에 담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친구와 함께 쿠키를 만들며 '협동'을, 쿠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를, 쿠키가 맛있게 구워져 나왔을 때 '자부심'과 '겸손'을, 맨 처음 나온 쿠키를 할머니께 드리며 '공경'을 이야기하는 식이다. 이렇게 상황에 잘 들어맞는 재치 있는 정의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 토토북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봐"로 시작하는 수업 시간에 잘 모르는 아이, 자신이 없는 아이의 가슴은 오그라든다. 망설이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실이 틀려도 괜찮은 곳, 틀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 동화책이다.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 시공주니어

레오 리오니는 어린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그들의 독립된 자아 의식을 중시하는 작가. <프레드릭>에는 그의 이러한 작가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다.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사고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과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색채의 아름다움은 읽는 이에게 아늑한 인상을 남긴다. 절제의 미학이 돋보이는 그림책.



황소 아저씨

권정생 / 길벗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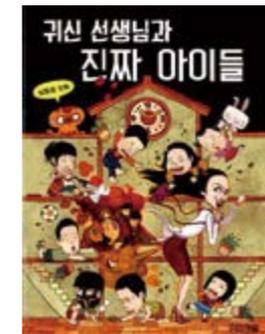
<강아지 똥>의 작가 권정생의 따뜻한 글과 토속적인 정감이 물씬 묻어나는 이야기. 정승각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 어우러진 농치기 싫은 그림책. 한밤중에 찾아온 새앙쥐를 내쫓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황소 아저씨와 그 정을 고맙게 받고 모두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개구리 논으로 오세요

여정은 / 길벗어린이

동식물의 생태와 자연 체험 활동이 어우러진 생태 그림책. 개구리논에서 아이들이 동식물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정겨운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펼쳐진다. 개구리를 비롯한 생물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개구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귀신 선생님과 진짜 아이들

남동윤 / 사계절

엽기적이지만 알고 보면 인간적인 귀신 선생님과 4학년 1반 아이들 모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따뜻하면서도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책. 아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살아 있고, 개성 넘치는 그림체와 색감은 기발한 이야기들을 더욱 돋보인다. 아이들다운 순수함과 영동한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이 책은 누구 하나 특별하게 잘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아이들의 보석같이 빛나는 일상을 담아냈다.



그림 도둑 준모

오승희 / 낮은산

준모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 뭐든 잘하는 것으로 상을 한 번 타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 준모는 엄마의 등쌀에 미술학원을 다니며, 그림으로 상을 한 번 타겠다는 생각에 매일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만 실력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불조심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준모는 선생님의 착각 때문에 예린이 그림으로 상을 타게 된다. 평범한 아이 준모가 난생 처음 받은 상을 둘러싼 복잡한 사건들을 통해, 어린 시절을 아프게 하는 죄의식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아이의 심리를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나 오늘부터 일기 쓸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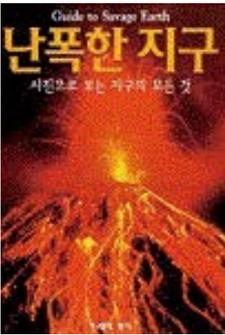
방미진 / 청어람주니어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속이 깊은 달봉이, 누구보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설 줄 아는 나나.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은 칠칠이가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 집에 놀러가 맛있게 밥을 먹을 때까지 소소한 일상이 마치 아이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실감 나게 그려진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각자 개성이 묻어나는 일기로 남는다. 아이들의 일기 속에는 그날 느꼈을 아이들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아이들의 일상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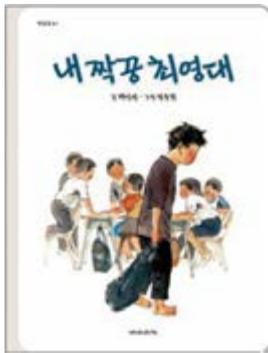
나보다 작은 형
임정진 / 푸른숲주니어

지은이의 진심어린 마음이 꼭꼭 담긴 이야기 다섯 편. 무지개가 일곱 가지의 색깔을 가진 것처럼, 이 책에 실린 이야기 또한 모두 다른 빛깔이다. 가슴 한 쪽이 싸해지며 목이 메이는 이야기에서부터 '우히히히' 유쾌한 웃음이 실새없이 터져나오는 발랄한 이야기까지. 표제작 '나보다 작은 형'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거운 병에 걸린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이야기이다.



난폭한 지구
트레버 데이 / 예림당

지구의 탄생,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해온 과정 등을 디지털 이미지와 이해를 돕는 삽화, 생생한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책. 생명을 키우고 산과 절벽을 만들고, 화산이 폭발하게 하는 등 지구가 지닌 놀랄만한 힘을 가르쳐 준다. DK 출판사의 <Guide to Savage Earth>를 번역한 책으로 우주 대폭발, 대륙 이동, 화산 폭발, 산맥, 지진, 해일, 풍화, 침식 작용, 빙하, 눈사태, 사막 등 지구가 지금까지 변화해 온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설명한다.



내 짝꿍 최영대
채인선 / 재미마주

엄마가 없어 차림새도 더럽고 말도 잘 못하는 영대. 반 아이들이 따돌리고 못살게 굴지만 영대는 바보처럼 참기만 한다. 좀처럼 울지 않던 영대가 어느 날 울음을 터뜨리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그림과 함께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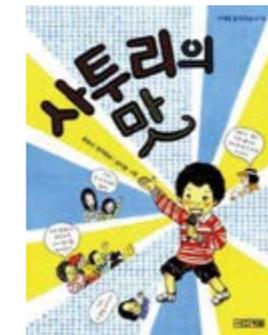
두뇌를 깨우는 수수께끼 250
김은빈 / 꿈꾸는달팽이

웃음과 재치가 넘치는 알쏭달쏭 수수께끼를 풀고, 수박 아저씨와 함께 나만의 수수께끼도 만들어 보도록 구성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을 보며 수수께끼를 풀다 보면, 새로운 낱말과 어휘와 상식이 머릿속으로 쑥쑥 들어온다. 또한, 우리 주위의 자연과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보면, 창의력과 상상력도 향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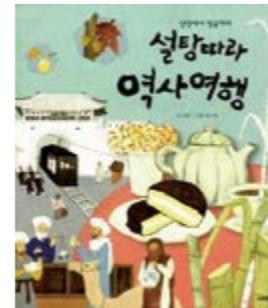
만년샤쓰
방정환 / 길벗어린이

이 책은 가난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씩씩한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추운 겨울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교복 저고리를 벗으라고 호령하는데 창남이는 '만년샤쓰'를 입었다는 재치 있는 대답과 함께 맨살을 드러낸다. 속옷이 없어 걸옷만 입은 것이다. 다음날엔 아예 맨발에 짚신을 신고 등교한다. 선생님과 동무들은 동네에 불이 나 가재를 다 잃은 이웃 사람들에게 신던 것을 나눠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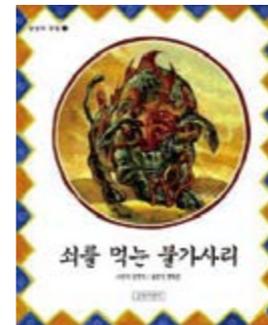
사투리의 맛
류호선 / 사계절

학급 내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투리 문제를 소재로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낸 동화. 사투리의 진정한 맛을 알게 하는 동시에 시골 아이들과 서울 아이들을 비교해 생각해 한다. 철환이는 여수에서 동네 아나운서로 통할 정도로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다.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인 철환이가 서울로 전학을 가면서 조폭 같은 말투라고 놀림을 받는데... 작가는 시골 아이들이라 해서 행색이나 말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 보자고 말한다. 각 지방 사투리가 얼마나 개성 강하고 소중한 언어인지 일깨워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설탕 따라 역사 여행
김곰 / 너머학교

친숙한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길을 따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며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너머학교 역사 여행' 시리즈. 설탕이 바꾼 식탁의 풍경과 역사의 흐름을 보여 주는 역사 그림책이다. 인도, 유럽과 조선 등을 넘나들며, 고대에서 현대까지 설탕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낸 따스한 색감의 그림과 친절하고 활기찬 글이 어린이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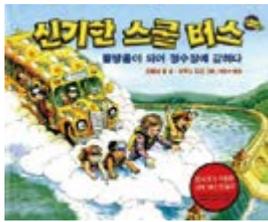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하섭 / 길벗어린이

권력자에게는 무서운 괴물이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막아주는 불가사리 수호신이었던 불가사리의 삶과 죽음을 그려낸 그림동화다. 불가사리는 고려말 송도(개성)에 나타나 쇠를 먹어치우고 다니다 조선 건국 후 사라졌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전쟁 통해 남편과 자식을 잃은 홀어미가 밥풀로 만든 인형인 불가사리를 먹으면서 자라나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무기를 먹어치워 오랑캐를 물리친다.



슈퍼 걸스! 크리스 페리 / 비룡소

7~11세 사이 여자 어린이들의 일상과 갈등,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결책까지 재미있게 담아낸 동화책 시리즈로, 여자아이들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와 단순한 언어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공감 가는 주제, 사실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일러스트, 간결한 문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춰, 호주에서만 2005년 출간 이후 250만 부 이상 판매된 호주 대표 동화 시리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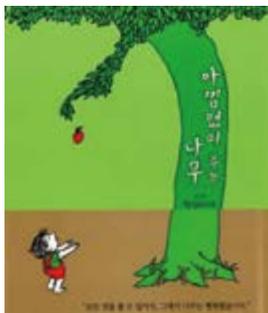
신기한 스쿨 버스 조애너 콜 / 비룡소

신기한 스쿨 버스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어려운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 주는 과학 그림 동화. 단순히 과학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알려 주는 책이 아니라, 그림과 이야기로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모험심을 자극한다.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기상학, 고생물학 등의 주제를 열 권에 나누어 담았다.



신나는 열두달 명절 이야기 우리누리 / 주니어중앙

새해 첫날 신발을 훔치러 오는 귀신 이야기, 칠월 칠석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 강강수월래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동짓날 팔죽 이야기 등 명절의 유래 및 풍습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옛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과학적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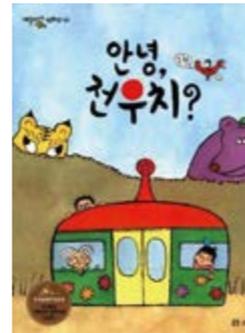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셀 실버스타인 / 시공주니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책으로, 출판된 지 5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독자들과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소년이 나무줄기에 자기와 나무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조각칼로 파 넣은 듯한 타이포그래피는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균형미를 준다. 본문 역시 세련된 감각으로 재정비해, 모든 세대가 함께 보면 좋을 고전 중의 고전으로 재탄생했다.



아름다운 가치 사전 채인선 / 한울림어린이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되지만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 지나치기도 쉬운 가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아이가 스스로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일상 속의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가치를 24가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안녕, 천우치? 하민석 / 보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심리가 잘 드러난 생활 만화이고 무엇보다 날마다 벌어지는 모험을 환상적으로 그린 모험 만화다. 고전 소설 속 천우치를 불러내서 작가 특유의 재치와 익살로 아이들 곁에 든든한 동무 캐릭터로 새롭게 만들어 냈다. 보통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만화 주인공들이 무슨 일이든 척척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천우치는 동무랑 함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실수도 한다. 도술을 부릴 줄은 알지만, 남에게 힘을 뽐내려고 쓰는 일도 없다. 개성 있는 그림체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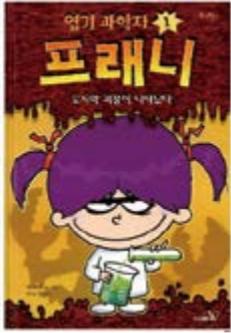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우등한 그릇 구리 료헤이 외 / 청조사

원작이 주는 감동 그대로 어린이들의 감성에 맞게 되살려 '가난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어린이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세 작품이 실려 있으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러스트를 곁들여 더욱 깊은 감동과 진한 여운을 더했다. 세 이야기 모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다.



열두살 백용기의 게임 회사 정복기 이송현 /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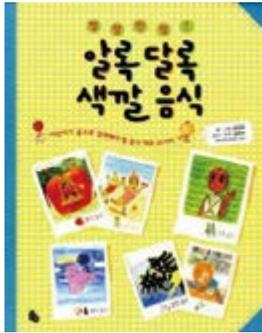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기업 넥슨과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비룡소가 함께 기획한 동화. 게임을 만드는 것이 꿈인 열두살 소년 백용기의 이야기를 통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고 게임 개발 과정, 게임의 역사와 미래 등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해 알려 주는 어린이 교양 동화다.



엽기 과학자 프래니

짐 벤튼 / 사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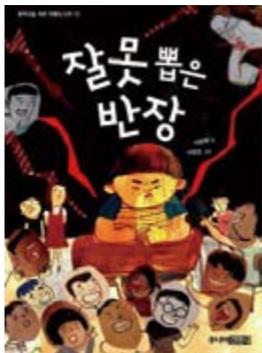
특별한 취미와 기발한 생각을 가진 엽기 과학 소녀 '프래니'. 풍부한 호기심과 놀라운 상상력으로 똘똘 뭉친 프래니는 신기하고 기상천외한 발명품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엽기적인 과학과 실험에 몰두하는 외톨이다. 큼직하고 화려하며 유머 가득한 그림들과 프래니의 엽기적인 행동들을 보면 킥킥 웃음이 난다. 하지만 프래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 읽고 책장을 덮으면 따뜻하고 훈훈하게 전해지는 감동이 전해진다. 남과 다른 나, 나와 다른 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영양 만점! 알록달록 색깔 음식

김진희 / 토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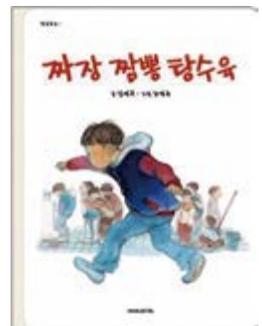
우리가 늘 접하는 음식 재료를 색깔별로 소개하는 책으로, 41가지 좋은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바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을까? 감자를 먹을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블루베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등 코믹하고 깜찍하게 표현된 그림과 함께 짤막한 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여러 음식 재료들과 친해지는 것은 물론, 좋은 식습관을 기르는 법,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려내는 법이 실려 있다.



잘못 뽑은 반장

이은재 / 주니어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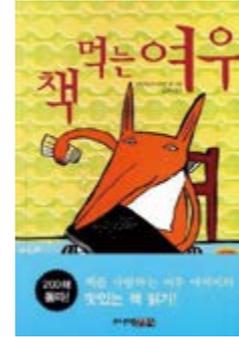
반장 선거를 소재로 한 창작동화. 반장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착한 아이와는 거리가 먼 이로운은 어느 날,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 주려고 반장 선거에 출마한다. 결국 협박과 거짓말로 반장에 당선되고, 이 잘못 뽑은 반장 때문에 4학년 5반은 엉망진창이 된다. 이로운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썽꾸러기 아이를 통해 선거와 반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작품이다.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 재미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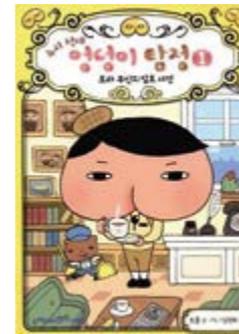
중국 음식점 집 아이 종민이가 전학을 와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만 놀이를 통해 따돌림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는 창작동화. 학교 화장실에서 왕, 거지 놀이를 벌이던 아이들이 거지 자리에 선 종민이에게 거지라고 놀린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종민이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 짜장을 넣은 커피 병을 보고 다른 아이들은 '거지'라 그러다며 또 놀린다. 다시 쉬는 시간이 되어 화장실에 간 종민이. 왕 자리에만 줄서 있는 아이들 틈을 비집고 큰 소리로 "짜장, 짬뽕, 탕수육"을 외치며 뛰어다니는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요즘 아이'의 지혜로움이 돋보인다.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 주니어김영사

'이솝 우화'를 우화의 전부로 아는 이들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감각의 현대 우화이다. 책을 쓰는 인간보다 더 책을 사랑하는 여우를 통해, 책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가를 다소 희극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교훈에 대한 강박 관념을 벗어던진 이러한 우화쓰기는 얼핏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진실해 보이기도 한다. 강렬한 대조가 돋보이는 자유로운 색과 화면 구성, 그림과 글의 절묘한 배합을 통해 보여주는 풍부한 환상의 세계는 우화의 맛을 한층 살려준다.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트롤 / 아이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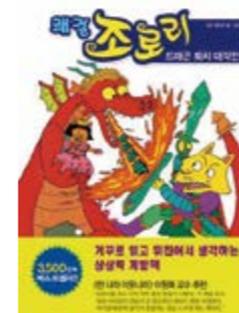
신은 '엉덩이 탐정'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었다. 아이큐 1,104를 자랑하는 천재 두뇌에 남다른 외모, 작은 단서만 가지고도 사건을 완벽히 해결하는 대단한 실력, 강아지 조수 브라운을 아끼는 다정한 마음씨까지. 반면 허당 기질이 있는 브라운은 금세 들떴다가 도로 시무룩해지기 일쑤에, 거짓말도 잘 못하는 순진한 성격이다. 서로가 이렇게 다른데도 손발이 척척 맞는 엉덩이 탐정 콤비에게, 고구마를 사랑하는 보라 부인이 사건을 의뢰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치키치키 쿵푸치킨

신디 마르크 / 고릴라박스

어느 날 초능력을 얻게 된 꼬마 닭과 동생 병아리가 닭의 도시 닭크시티를 위협하는 악당을 물리치는 모험을 그린 슈퍼 영웅물이다. 어린이들이 감탄해 마지않는 '슈퍼 영웅'을 겁쟁이로 상징되는 '치킨'으로 표현한 반어적 재미가 쏠쏠하다. 이 시리즈는 미국 최대의 도서리뷰지인 '커커스 리뷰'에서 '2014년 최고의 어린이책'으로 뽑혔다. 또한 미국 도서관저널 및 미국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를 뽑는 '캐나다 실버버치 상'의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있기도 하다.



쾌걸 조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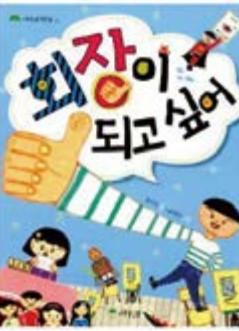
하라 유타카 / 을파소

일본에서 2400만부 판매된 초특급 베스트셀러. 1987년 첫 권이 발간된 이래, 20년이 넘게 어린이와 부모님들께 사랑받고 있는 명랑동화다. 장난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장난의 천재 쾌걸 조로리의 활약을 보고 있으면 기발한 아이디어에 놀라고,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웃지 않을 수 없다. 조로리를 사부님으로 모시겠다며 함께 여행길에 나서는 이시시, 노시시의 행동 역시 웃음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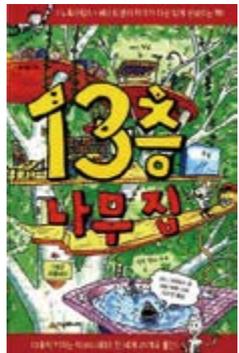
쿠키 전쟁
정란희 외 / 크레용하우스

남자와 여자의 미묘한 심리전을 유쾌하게 그려낸 동화이다. 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회장 선거, 환경 미화, 학예회 등을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각자 반에서 일어났던 싸움이나 소동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회장이 되고 싶어
송아주 / 상수리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제대로 못한 채 거짓말을 하고 마는 어린이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려낸 동화이다.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아이의 거짓말을 따뜻하게 감싸는 엄마의 마음도 몽클하게 다가온다. 환한 색채로 준수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을 푸는 과정을 잘 표현한 화가의 그림 또한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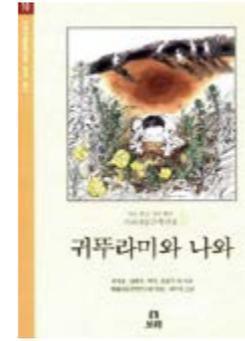
13층 나무 집
앤디 그리피스 / 시공주니어

13층 나무 집은 두 소년이 눈치 안보고 실컷 놀 수 있는 환상적인 놀이터이면서, 둘이 함께 책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앤디는 글을 쓰고 테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들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나가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다. 만화와 동화의 중간쯤,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실험을 엮어내는 세련된 감각을 뽐내는 책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한바탕 땀나게 뛰어 놀고 온 느낌이다. 20개국에 출간되며 어린이 독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구성애 아줌마의 뉴 초딩 아우성
구성애 / 올리브

구성애식 성교육을 만화로 옮긴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질문과 상담 내용을 분석해 성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만화화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성의 호기심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 개념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운이와 제윤이의 육체적 성장으로 생긴 몸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등이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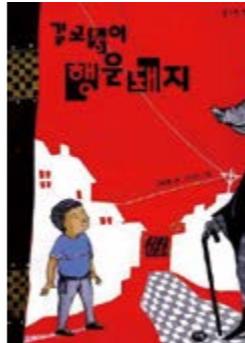
귀뚜라미와 나와
권태응 / 보리

새로 찾고 가려 뽑은 '겨레아동문학선집'으로 1920년대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바로 전까지 발표된 동화와 동시들을 남북이 갈라진 뒤 처음으로 모아 엮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도 보기 힘든 수많은 잡지와,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져 5년 넘게 공들여 발굴한 결과,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이 절반 이상 수록되었다. 널리 알려진 작가나 작품이라도 새로운 잣대로 골랐다. 또 어른 문학 작가나 어른 작품으로 발표된 것이라도 아이들에게 줄 만한 것이면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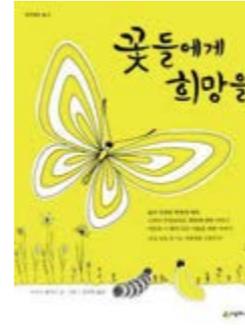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 재미주의

만화가 강풀의 대표작.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사랑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슴 찡한 이야기다. 주인공은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피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하고, 가난하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생소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불문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길모퉁이 행운돼지
김종렬 / 다림

공짜 행운을 좇다 돼지가 되어 버린 사람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빚어 낸 우스꽝스런 현실을 작가 특유의 넘치는 상상력으로 유머러스하게 묘사한 판타지 동화다. 글과 그림의 자유로운 배치를 통해 독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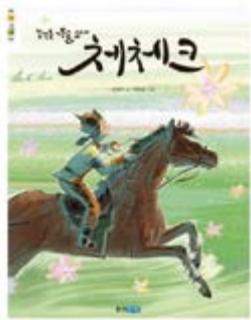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 시공주니어

1972년 처음 출간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이 작품은 참자아와 희망을 노래하는 두 애벌레의 이야기이다. 단순히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노랑 애벌레와, 애벌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른 채 무작정 다른 애벌레들을 따라 애벌레 기둥을 오르는 호랑 애벌레. 결국 이 두 애벌레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꿀벌 마야의 모험
발데마르 본젤스 / 비룡소

꿀벌 마야가 벌집을 떠나 자연 속에서 겪는 모험을 담은 책. 독일에서 1912년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는 고전 동화. 무리를 나온 꿀벌 마야의 모험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의무와 권리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꿀벌이 꿀을 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야는 좀 다르다. 처음으로 나들이를 간 마야는 평생 꿀만 날라야 하는 꿀벌 도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얇은 날개와 본능을 의지 삼아 호수와 숲, 들판을 모험하게 된 마야는 길에서 수많은 곤충들을 만나 여러가지를 배운다.



꿈꾸는 몽골 소녀 체체크
김향이 / 웅진주니어

‘체체크’는 몽골 말로 꽃을 뜻한다. ‘꽃’이라고 하면 정원 한 편에 피어난 꽃처럼 얌전하고 여린 소녀를 떠올리겠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체체크는 그런 소녀가 아니다. 오히려 초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없는 꽃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칠지만 힘차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찬 아이다. 거센 바람이 부는 황량한 초원, 봄까지 이어지는 매서운 추위, 가축들이 뜰어 먹을 풀을 따라 일 년에 네다섯 번은 이사를 다녀야 하는 곳, 체체크와 가족들은 이런 몽골 땅에서 추위와 가난을 견디며 살아간다. 고된 삶이지만 체체크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쁜 말 팔아요
페드로 마냐스 로메로 / 책과콩나무

나쁜 말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아만다가 나쁜 말 가게를 열어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팔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매우 흥미롭고 경쾌하게 그리고 있다. 에스파냐의 최고 아동문학상인 ‘말라가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재미와 교훈을 적절하게 배치해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쁜 말의 부작용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남녘과 북녘의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보는 보리 국어 사전
토박이 사전 편찬실 / 보리

새 교과서 낱말을 반영해 모두 4만 7천 개가 넘는 낱말을 수록한 어린이용 국어사전. 우리말을 배우는 아이들의 첫걸음에 든든하고 친절할 길잡이가 되어 줄 책이다. 2008년에 처음 출간되어 출판계에서 많은 칭찬과 상을 받고, 전국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낱말만 풀이하는 국어사전이 아닌 자연관찰 백과사전이자 전통문화 백과사전이다.



내가 진짜 기자야
김해우 / 바람의아이들

학급 기자로서 그리고 한 소녀를 짝사랑 하는 소년 진우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신문과 기자, 기사에 대한 순수한 접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기자의 직업과 역할에 대하여 다룬다. 오늘날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진짜 기자’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한편, 아이들 특유의 에너지와 유쾌함을 놓치지 않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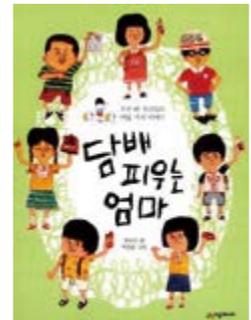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 문학동네어린이

제 눈에 만만하게 보이는 동갑내기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소위 ‘왕따 가해자’인 동우는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해 염라대왕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동우를 호출한 건 저승사자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승으로 돌아갈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까운 사람에게 노잣돈을 갚아야 한다는 알쏭달쏭한 임무,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한. 여기에 자신이 줄곧 무시해온 준희와의 불편한 관계가 자꾸만 끼어들고, 단짝 친구 태호와의 우정마저 위기에 처한다. 동우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강렬한 인상을 주는 동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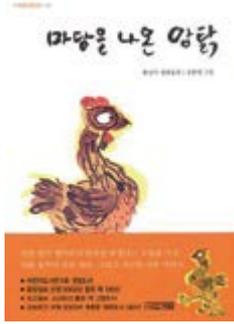
다랑쉬오름의 슬픈 노래
박재형 / 베들북

제주도의 4.3 사건을 소재로 한 동화. 일제의 식민 통치와 해방 후의 혼란, 한국 전쟁, 분단으로 인한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터진 제주의 4.3 사건을 어린 소년 경태의 눈으로 전해준다. 어린이에게 가슴 아픈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4.3 사건의 정치적·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했는지 초점을 맞추었다. 중요한 것은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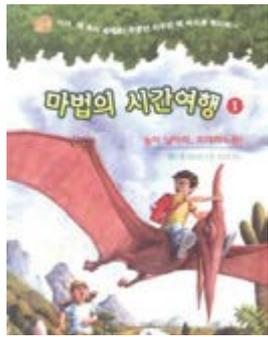
담배 피우는 엄마
류호선 / 시공주니어

이 작품은 4학년 5반, 같은 반이라는 공통분모가 각 이야기를 거미줄처럼 끈끈히 연결해 준다. 여덟 편의 독립된 이야기를 접하게 되지만, 누가 누구와 단짝이고, 누구와는 앙숙이며, 지금 하는 고민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등, 일곱 주인공들의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얽혀 있다. 앞 친구 이야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소소한 부분이, 뒤에 다른 친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부여되면서 읽는 재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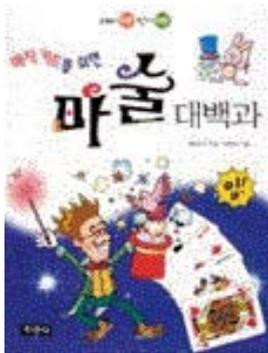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 사계절

닭장 속에 갇힌 채 시름시름 지쳐가는 암탉에게 꿈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자기가 낳은 알을 품어 예쁜 새끼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 우여곡절 끝에 암탉은 닭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지만, 거친 야생의 들판과 저수지에서 살아나가려면 족제비에게 잡아먹힐 위험과 먹이를 스스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꿈과 자유를 위해 안락과 안전을 버린 암탉은 청둥오리의 알을 품어 새끼를 기른다. 편안함에 길들여져 꿈을 버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마법의 시간여행
메리 폼 어즈번 / 비룡소

두 남매가 시간여행을 하면서 겪는 모험을 담은 '마법의 시간여행' 시리즈의 첫번째 책. 호기심 많고 꼼꼼한 메모광인 잭과 적극적이지만 덤벼거리는 애니는 어느 날 숲 속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한다. 잔뜩 책이 쌓인 오두막집에서 우연히 좋아하는 공룡책을 펼치고 "이곳에 가고 싶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두 아이는 공룡시대에 와있다. 이 시리즈는 훌륭한 학습서 역할을 한다. 공룡, 일본 사무라이, 키드 선장, 이집트의 미라, 아마존, 빙하 시대, 우주여행 등 다양한 테마들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지식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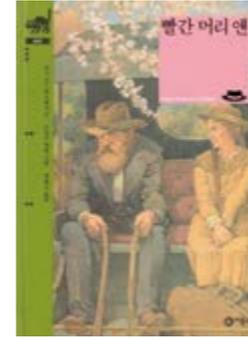
매직키드를 위한 마술 대백과
해바라기 / 지경사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각종 마술을 소개한다. 동전과 지폐를 이용한 마술, 신문, 종이, 테이프, 나무젓가락 등의 소품을 이용한 마술, 손수건과 로프를 이용한 마술, 카드를 이용한 마술,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마술 등 재미난 마술이 가득 있다. 일목요연한 마술 방법의 설명과 깔끔한 일러스트가 어린이들이 마술을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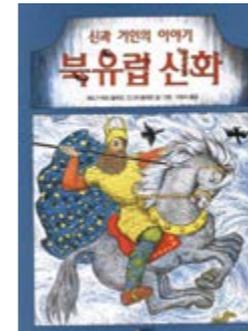
문화재 이름도 모르면서
이재정 / 나는책

길고 복잡한 문화재 이름 풀기를 시작으로 문화재의 특징과 내력을 차근차근 밝혀가는 책이다. 도자기, 불상, 활자, 기록, 탑, 복식, 가옥, 궁궐, 성 등 17개의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으며,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가능하도록 엄선한 사진과 그림 자료를 함께 실었다. 한자로 붙여진 생소한 이름 때문에 겪는 곤란을 넘어, 어린이들이 역사 문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지름길을 찾도록 안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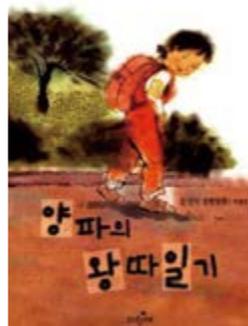
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 비룡소

1908년 처음 출간된 작가의 데뷔작이자 대표작.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 섬에서 펼쳐지는 앤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 주근깨에 뺨뺨 마른 소녀, 사랑스럽고 밝은 힘을 내뿜는 빨간 머리 여자아이, 짧은 묘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앤'은 고전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다. 삶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앤의 대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위안을 안겨 준다.



신과 거인의 이야기 북유럽 신화
인그리 돌레르 / 시공주니어

북유럽 신화를 통해 바이킹으로 대표되는 북유럽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북유럽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더불어, 유럽 2대 신화로 수많은 판타지의 배경이 되었다. 인간과 신을 다스리는 최고신 오딘을 비롯해, 발데르, 발키리, 로키, 프리그, 토르, 프레이야 등 북유럽의 신들이 아홉 세상에서 벌이는 전쟁과 갈등, 사랑과 모험이 '라그나뢰크(최후의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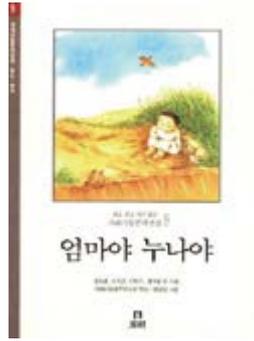
양파의 왕따일기
문선이 / 주니어파랑새

정화는 같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양미희라는 친구와 친하고 싶다. 그래서 양미희를 따르는 친구들의 그룹인 '양파'에 들고 싶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화는 양파의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미희와 친하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는 미희로부터 양파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고 너무 신이 난다. 양파 친구들이 반 아이들을 따돌리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양파에 끼였다는 기쁨에 감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양파 내에 있는 친구까지 따돌리는 일이 생기자 정화의 마음은 점점 괴로워져 간다.



어린이 사회 형사대 CSI
교회정 / 가나출판사

추리로 배우는 사회 교과서 시리즈로 학습 동화다. 초등 사회 각 영역에 능통한 일반 사회 형사, 경제 형사, 지리 형사, 역사 형사, 정치 형사 캐릭터가 등장하며 이들이 다양한 사건 사고를 사회 교과 내용을 이용해 해결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사회 교과와 추리를 결합한 사회 추리 동화로, 상황을 예상하고, 범인을 가정하고, 추론하고, 증거를 찾는 등 추리 기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책이기 때문에 사회 학습 내용을 능동적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익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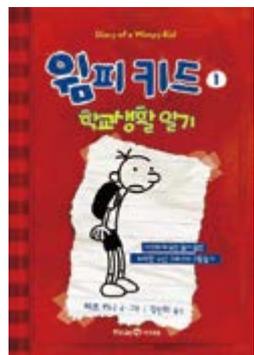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외 / 보리

새로 찾고 가려 뽑은 '겨레아동문학선집'으로 1920년대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바로 전까지 발표된 동화와 동시들을 남북이 갈라진 뒤 처음으로 모아 엮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도 보기 힘든 수많은 잡지와,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져 5년 넘게 공들여 발굴한 결과,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이 절반 이상 수록되었다. 널리 알려진 작가나 작품이라도 새로운 잣대로 골랐다. 또 어른 문학 작가나 어른 작품으로 발표된 것이라도 아이들에게 줄 만한 것이면 선정하였다.



옛날엔 이런 직업이 있었대요
우리누리 / 주니어중앙

컴퓨터 프로그래머, 스투어디스, 바리스타 등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활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기에 그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은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 그 예로, 옛날에는 궁녀나 백정, 역관, 도공, 훈장 등의 직업이 있었다. 요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다. 이 책에는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자기 삶을 훌륭하게 가꾼 옛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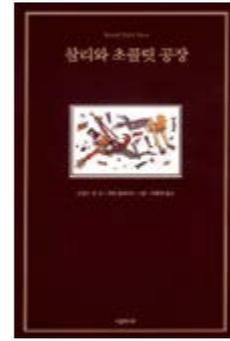
임피 키드
제프 키니 / 아이세움

시니컬한 중학생 그레그의 일상을 개성 있는 흑백 일러스트와 재치 넘치는 문장으로 그려낸 어린이 문학 시리즈다. 출간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중학생 소년 그레그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일기 쓰기를 시작한다. 올해 그레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학교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그는 학생 선거에 나가고, 레슬링을 배우고, 연극 공연을 하고, 학교 안전 순찰대에 들어가고, 학교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한다. 과연 그레그는 그렇게 바라 마지않던 인기 짱이 될 수 있을까?



자전거 도둑
박완서 / 다림

작가가 79년에 쓴 어른을 위한 동화집 <달같은 달갈로 값으렴>에서 추려 묶은 동화집. 도서출판 다림에서 동화와 그림을 아울러 새로 꾸며 출판하였다. 총 6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어두운 시절에 마음을 달래고자 썼다는 작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실린 동화들은 한결같이 비판과 풍자를 동화 속 깊이 감추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과 농촌민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로알드 달 / 시공주니어

윌리 윙카의 초콜릿 포장지에서 황금빛 초대장을 우연히 받게 된 찰리가 겪는 모험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어린이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비밀에 싸인, 전설적인 윌리 윙카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콜릿과 사탕을 선물로 받는다. 엄청나게 마구 먹어대는 아우구스투스 굴롭, 세상에서 제일 버릇없는 버루카 솔트, 늘 짹짹 씹어대는 바이올렛 뷰리가드, 온종일 TV 앞에만 붙어 사는 마이크 티비, 말라깽이 찰리까지. 과연 이들에게 어떤 모험이 기다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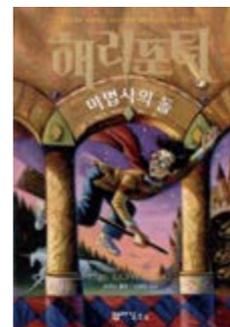
철학 고양이 요루바
김용규 / 주니어김영사

청소년용 철학입문서 『철학통조림』가 만화로 재탄생했다. 어린이 이성 교육에 있어 철학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동안의 철학이론의 개념과 철학자 중심, 논술이나 사고력 위주의 책과는 다르게 철학의 핵심정수만을 만화로 쉽게 풀어냈다.



할머니의 레시피
이미애 / 아이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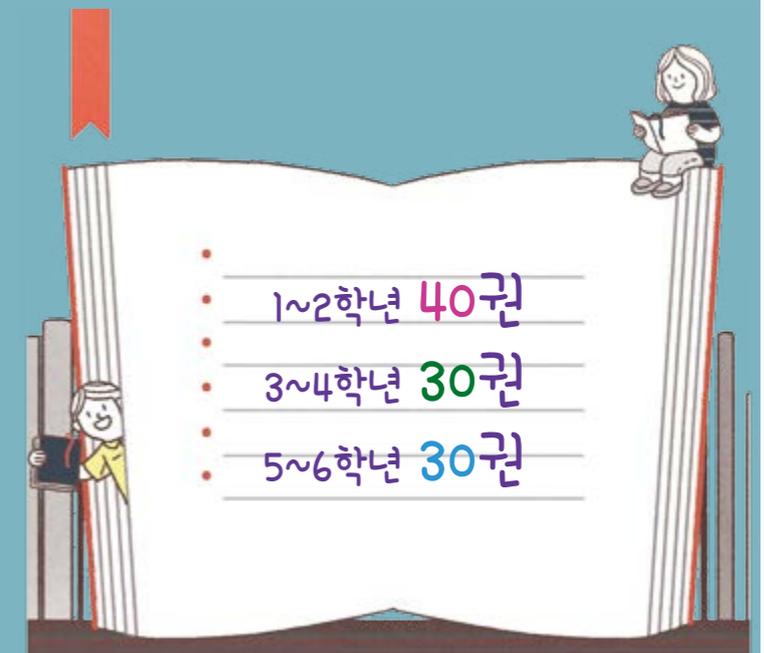
아옹다옹 투닥거리던 외할머니와 손녀가 결국 딱딱한 껍데기를 벗고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 놓은 애정을 확인하는 이야기. 유머와 감동 등을 적절하게 결합된 이야기와 함께 소박한 시골 정경과 맛있는 음식,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가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J. K. 롤링 / 문학수첩

소년 마법사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독특한 이야기로 책이 출간될 때마다 무단결석으로 몸살을 앓는 학교, 어른들까지 밤잠을 설치게 하는 해리 포터 시리즈는 2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1천만 부 이상 팔려나는 '해리 포터'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독서 열풍으로 들끓게 만드는 판타지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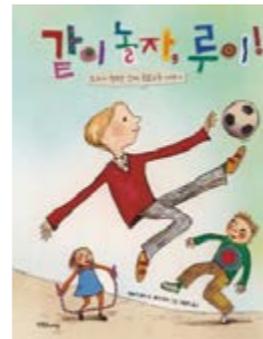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초등학생 추천도서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1	1·2	같이 놀자, 루이!	레슬리 일리	한울림스페셜
2	1·2	거짓말	나카가와 히로타카	길벗어린이
3	1·2	거짓말 손수건, 포포피포	디디에 레비	이마주
4	1·2	고맙습니다 별	박효미	한겨레아이들
5	1·2	고제는 알고 있다	김기정	낮은산
6	1·2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시공주니어
7	1·2	나는 죽음이예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마루벌
8	1·2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마리안느 뒤비크	고래벳속
9	1·2	내가 쓰고 그린 책	리니에르스	책속물고기
10	1·2	눈물이 펑펑!	안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라임
11	1·2	달을 줄 걸 그랬어	존 무스	담푸스
12	1·2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페레 코메야스	책속물고기
13	1·2	론도의 노래	로마나 로마니신	산하
14	1·2	맨날 맨날 화가 나!	양혜원	좋은책어린이
15	1·2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기타무라 사토시	불광출판사
16	1·2	발표하기 무서워요!	미나 뤼스타	두레아이들
17	1·2	방귀대장 조	케슬린 크렐	다산기획
18	1·2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아, 사랑해!	줄리 폴리아노	찰리북
19	1·2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길벗어린이
20	1·2	빨간 모자의 여동생	디디에 레비	씨드북
21	1·2	산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씨드북
22	1·2	선생님 길들이기	송언	별숲
23	1·2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황금 접시	버나뎃 와츠	봄별
24	1·2	식물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하나요?	한영식	다섯수레
25	1·2	안버려, 못버려, 모두 소중한	페트라 포스테르트	씨드북
26	1·2	안전 대장 리시토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별
27	1·2	어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비르지니 모르간	주니어RHK
28	1·2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난다
29	1·2	에디슨이 포드에게 알려 준 발명가의 비밀	수잔 슬레이드	스콜라
30	1·2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텔 팀	풀빛
31	1·2	완벽한 계획에 필요한 빈칸	코 맥클리어	노란상상
32	1·2	우리 가족 캠핑 여행	백은희	비룡소
33	1·2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다비드 칼리	현복스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34	1·2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35	1·2	책 읽는 강아지	베로니크 코시	그린북
36	1·2	펭귄은 너무해	조리 존	미디어창비
37	1·2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이영아	꿈교출판사
38	1·2	할아버지의 코트	짐아일스워스	이마주
39	1·2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봄별
40	1·2	행운을 찾아서	세르히오 라이올라	살림어린이
41	3·4	강가에서	트레이스 발라	산하
42	3·4	고릴라 미용실	박준희	책고래
43	3·4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	미하엘 엔데	보물창고
44	3·4	그날 밤 인형의 집에서	김향이	비룡소
45	3·4	기적을 불러온 타자기	윤혜숙	별숲
46	3·4	노래하는 은빛 거인	신원미	머스트비
47	3·4	노인과 소년	박완서	어린이작가정신
48	3·4	도깨비가 슬금슬금	이기을	북극곰
49	3·4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박현경	해와나무
50	3·4	바보가 만든 숲	미야자와 겐지	담푸스
51	3·4	박지민이 안 그랬대!	유순희	라임
52	3·4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	김경민	밝은미래
53	3·4	빙하기라도 괜찮아	이현	비룡소
54	3·4	샌드위치 도둑	앙드레 마루아	이마주
55	3·4	서로 다른 우리가 좋아	김경화	위즈덤하우스
56	3·4	소금인형의 바다	우덕현	에스앤아이팩토리
57	3·4	시간의 섬	마르타 반디니	다섯수레
58	3·4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문학동네
59	3·4	알렉스 스콧, 레모네이드의 적	리즈 스콧	다산기획
60	3·4	엄마도 나만큼 속상해요?	최형미	아주좋은날
61	3·4	육괴물	송보혜	파란정원
62	3·4	우리 모두 왕	하인츠 야니쉬	베틀북
63	3·4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꾼다	게오르크 비들린스키	아름다운사람들
64	3·4	인터넷 숨바꼭질	이미지	좋은책어린이
65	3·4	잭키 마론과 악당 황금손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66	3·4	질문 상자	요슈타인 가아더	시공주니어

번호	학년	서명	저자	출판사
67	3·4	프립 마을의 몹시 집요한 개퍼들	조지 손더스	담푸스
68	3·4	하람이의 엉뚱한 작전	신현수	좋은책어린이
69	3·4	하룻밤	이금이	사계절
70	3·4	학교야, 울지마!	오채	문학과지성사
71	5·6	100만 가지 소원	브랜던 로브쇼	두레아이들
72	5·6	1764 비밀의 책	조경숙	해와나무
73	5·6	건방진 장루이와 68일	황선미	위즈덤하우스
74	5·6	날씨 이야기	브리타 테큰트럽	북뱅크
75	5·6	내가 안 보이나요?	실벤느 자우이	한울림스페셜
76	5·6	네모 돼지	김태호	창비
77	5·6	닭 다섯 마리가 필요한 가족	박현숙	뜨인돌어린이
78	5·6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창비
79	5·6	도전! 희망 신기록	로빈 스티븐슨	책속물고기
80	5·6	마귀할멈과 그냥할멈 & 해적고양이	김용준	푸른책들
81	5·6	바람처럼 달렸다	김남중	창비
82	5·6	보름달숲에서 생긴 일	최은옥	해와나무
83	5·6	브로커의 시간	서연아	바람의아이들
84	5·6	소금이	김우경	고인돌
85	5·6	스크린을 먹어 치운 열흘	소피 리갈 굴라르	씨드북
86	5·6	안녕 크렌쇼	캐서린 애플게이트	책과콩나무
87	5·6	와! 물맴이다	손운한	지성사
88	5·6	우리 둘	후쿠다 다카히로	찰리북
89	5·6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배성호	초록개구리
90	5·6	위험한 게임 마니또	선자은	푸른숲주니어
91	5·6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송희경	웃는돌고래
92	5·6	잊을 수 없는 외투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논장
93	5·6	제후의 선택	김태호	문학동네
94	5·6	책이 있는 나무	비센테 무뇨스 푸에예스	풀빛미디어
95	5·6	첨단과학이 번쩍번쩍	발레리오 로시 알베르티니	청어람미디어
96	5·6	최탁씨는 왜 사막에 갔을까?	정승희	바람의아이들
97	5·6	통조림 학원	송미경	스콜라
98	5·6	플레이 볼	이현	한겨레아이들
99	5·6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신운선	문학과지성사
100	5·6	햇빛마을 아파트 동물원	정제광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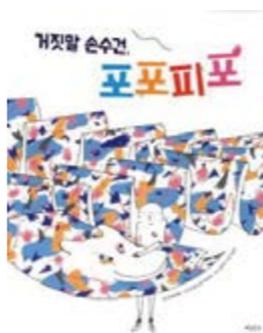
같이 놀자, 루이!
레슬리 일리 / 한울림스페셜

자폐 아동 루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 가는,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의 모습을 그린 책이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친구들은 친구들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소통하고, 비장애 친구들은 웃음과 여유 속에서 이해와 존중을 배운다. 이 책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루이네 교실처럼 우리가 꿈꾸는 진짜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거짓말
나카가와 히로타카 / 길벗어린이

이 책은 거짓말이란 이런 거야, 하고 단정 짓지 않고 “거짓말이란 뭘까.”, “사람이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 스스로 고민하게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책에 담긴 것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짓말들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무작정 혼내기보다, 이 책을 함께 읽고 거짓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말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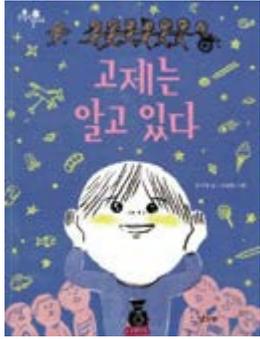
거짓말 손수건, 포포피포
디디에 레비 / 이마주

거실 한가운데서 신나게 축구 묘기를 선보이던 클로비는 엄마가 아끼는 하마 도자기 인형을 깨뜨리고 만다.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클로비는 얼떨결에 손수건에 깨진 조각들을 싸서 주머니 속에 감춰 두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깨진 조각들은 사라지고 손수건에는 도자기의 무늬만 남은 것. 고장 낸 할머니의 선풍기도, 아빠의 서명을 베낀 것도 그저 손수건으로 싸거나 문지르기만 하면 해결된다. 어느덧 손수건은 점점 커지고, 무늬도 복잡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천이 된 거짓말 손수건은 이상한 괴물이 되어 클로비를 덮쳐 오는데...



고맙습니다 별
박효미 / 한겨레아이들

어느 날 수택이네 반에 ‘고맙습니다’ 알림판이 붙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노란 별 모양 스티커를 나누어주며, 고마운 사람이나 물건을 하루에 한 가지씩 써 오라는 숙제를 낸다. 수택이는 어른들이 원하는 답인 소방관 아저씨,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써 가는 대신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면서 갈등을 빚는데...



고제는 알고 있다

김기정 / 낮은산

몸이 아픈 가족,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표현이 서툴러도 우리 모두는 마음이 닿아 생기고 자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생이 늘 걱정인 승준이, 2학년울 한 번 더 다니는 꼬마와 껌대,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고제 이야기 세 편을 통해 서로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을 밝고 유쾌하게 보여 준다.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 시공주니어

이 책은 불평하며 살던 한 나무가 관심과 사랑을 준 이웃 덕분에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로, 웃음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웃으며 살아가라고 다독인다. 다소 낮익지만 늘 새겨야 할 주제에 색실로 화면을 채워 색다른 매력을 뽐냈다. 땀이 감동을 수놓은 손바느질 스티치는 시화(詩畵)를 보듯 아름답다.



나는 죽음이예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 마루벌

단순히 죽음을 겪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를 넘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의 또 다른 일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죽음을 경험한 아이는 물론 두렵게만 느끼는 어른들도 함께 읽기 좋은 그림책이다. 무언가를 설명하여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닌, 죽음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전해 주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감성 그림책이다.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마리안느 뒤비크 / 고래벳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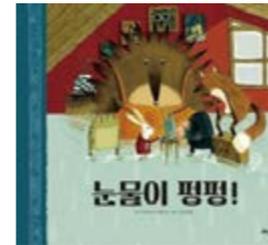
가족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오토는 과상하게 생긴 알에서 나온 낯선 생명체를 경계하면서도 첫눈에 "엄마!"라고 부르는 털복숭이를 외면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연민은 털복숭이의 엄마를 찾는 것이 길어지고, 털복숭이의 몸집이 커지면서 오토의 삶을 자꾸만 침범하자 차츰 불만으로 바뀐다. 참을성을 잃고 집을 뛰쳐나온 오토는 마음 한편에 커다란 무언가가 자리 잡았음을 느낀다. 오토와 털복숭이도 어느덧 서로에게 길들여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털복숭이의 엄마를 찾는 대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쓰고 그린 책

리니에르스 / 책속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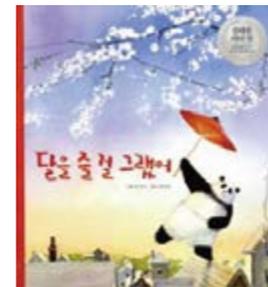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 세상을 만들어 내는지 보여 주는 작품이다. 엔리케타는 색연필을 선물을 받아서 멋진 이야기를 만들기로 한다. '모자 두 개를 쓴 머리 세 개 달린 괴물'이라는 제목을 짓고, 주인공 에밀리아의 모험을 흥미진진하게 펼쳐 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엔리케타의 이야기는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눈물이 펑펑!

안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 라임

이웃의 소중함과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그림책이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웃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서 마치 섬처럼 자기 생각과 입장에만 몰두하며 지내던 동물 친구들이, 마을에 홍수가 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재난을 이겨 내는 이야기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지내다가 큰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웃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 셈이다.



달을 줄 걸 그랬어

존 무스 / 담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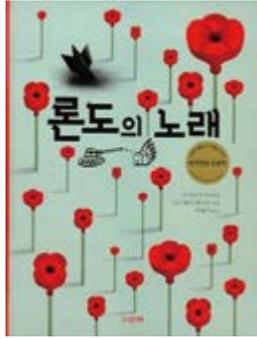
2006년 칼데콧 아너 상 수상작. 동양의 '선' 이야기를 다룬 이 책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살펴 보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 그림책으로는 독특하게 액자식 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적이면서도, 이야기를 듣는 삼 남매의 상황과도 잘 어우러져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책 한 권을 다 읽은 뒤에는 마치 세 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풍성한 이야기책이다.



돈을 공짜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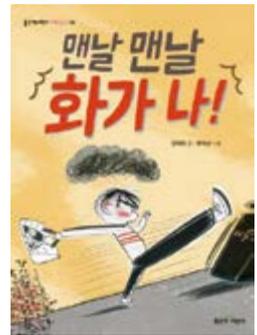
페레 코메야스 / 책속물고기

주인공 어린이가 바라보는 어른들의 돈을 향한 욕심과 집착을 유머러스하게 펼쳐며 돈의 의미와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 복권에 당첨되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이 가족은, 대단원의 소동 끝에 돈을 타인과 제대로 나누는 방법을 찾기로 한다. 10년이 걸려도 돈을 제대로 가치 있게 쓸 곳을 찾겠다는 가족의 다짐을 독자들도 응원하게 될 것이다.



론도의 노래 로마나 로마니신 / 산하

2015 볼로냐아동도서전 뉴호라이즌 부문 라카치상 수상작. 두 작가가 지난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계기로 쓴 작품이다. 전쟁의 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강렬한 상징들을 이용하여 전쟁과 평화의 이미지를 대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의 용감한 세 친구의 깨달음처럼, 폭력은 폭력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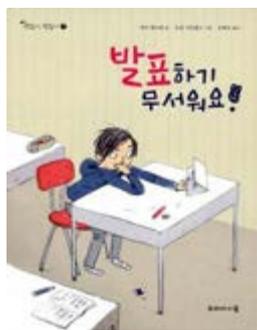
맨날 맨날 화가 나! 양혜원 / 좋은책어린이

땅꼬마 지하가 친구와의 갈등, 콤플렉스를 극복해 가는 한 뼉 성장 이야기다. 지하는 강아지라는 별명이 딱 질색이다. 작고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조금만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친구들 앞에서 버럭 화내는 습관이 생겨 버렸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하 주변엔 친구들이 많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명구가 동생들에게 놀림 당하는 걸 도와주면서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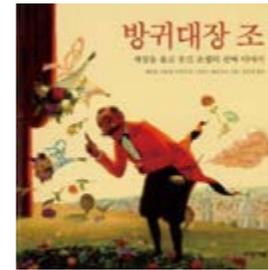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기타무라 사토시 / 불광출판사

어린이의 상상력이 주는 특별한 즐거움과 따스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을 마법 같은 글과 그림을 통해 보여 주는 환상적이고 명랑한 그림책. 집으로 가던 밀리는 모자 가게를 발견한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예쁜 깃털 모자를 써 보고서 모자를 사고 싶어진 밀리. 하지만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이런 밀리를 위해 모자 가게 아저씨가 아이디어를 낸다. 가게 뒤편에서 들고 온 상자를 열고 모자를 꺼내 밀리의 머리에 씌워 주며 아저씨는 말한다. “아가씨는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모자는 상상하는 것이라면 무엇으로든 변하는 판타스틱 모자였다.



발표하기 무서워요! 미나 뤼스타 / 두레아이들

다른 이들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인성 그림책 시리즈, ‘괜찮아, 괜찮아’의 일곱 번째 책이다. 발표력을 기를 수 있는 적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발표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발표 공포증, 발표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재미있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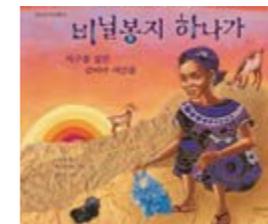
방귀대장 조 케슬린 크렐 / 다산기획

자유자재로 방귀를 끼는 신기하고 놀라운 재주를 지녔던 실존 인물 ‘조셉 푸줄’의 이야기를 담았다. 조는 방귀로 동물의 울음소리나 악기 소리를 낼 수 있어 방귀대장 조로 불렸다. 유명해진 조는 급기야 파리로 진출해 몰랭루주에서 방귀 공연을 펼쳐 스타가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방귀로 스타가 된 실제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아, 사랑해! 줄리 폴리아노 / 찰리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춘분)인 3월 20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의 계절의 풍경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쓴 49개의 글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한 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네 등분하여 계절의 대표적인 특징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고른 각 계절당 평균 12일의 모습을 생생하고도 아름다운 12개의 글로 보여 준다. 세분화된 글들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자연의 생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비닐봉지 하나가 미란다 폴 / 길벗어린이

아이사투는 1972년 서아프리카 감비아 나우에서 태어났다. 비닐봉지는 이미 도시에서 문젯거리였고 아이사투가 사는 나우 같은 마을에서도 곧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아이사투는 비닐봉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생각이 있었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설득한다. 새로운 생각을 실천하는 용기와 옳은 일을 한다는 믿음으로, 아이사투와 친구들은 마침내 마을을 바꾸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실화는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빨간 모자의 여동생 디디에 레비 / 씨드북

샤를 페로의 동화 <빨간 모자> 원작에는 없는 빨간 모자의 여동생 카를로타의 이야기다. 지은이 디디에 레비는 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아는 지혜롭고 용감한 카를로타를 주인공으로 삼아 샤를 페로의 이야기를 오늘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했다. 동화 속 인물을 익살스럽게 비틀어 현실 속 물질 만능주의와 그에 따른 환경 파괴를 재조명함으로써 읽는 즐거움과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함께 던져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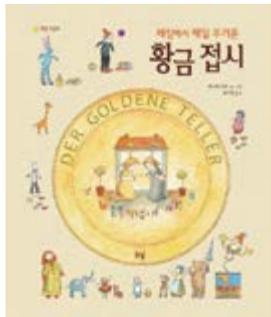
산딸기 크림봉봉
에밀리 젠킨스 / 씨드북

각각 10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산딸기 크림봉봉'을 식탁 위에 올렸던,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와 가족이 차례로 등장한다. 조리 도구와 냉장 기술은 얼마나 발달했고 집안과 거리 풍경,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 오늘날 제도와 의식의 개선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성차별, 인종차별이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사실도 배운다.



선생님 길들이기
송언 / 별숲

어린이의 해맑은 마음을 담아낸 동화 세 편을 실었다.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단편동화에는 어린이의 순수하고 해맑은 동심 세계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어른들이 어린이의 마음을 품어 안아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세 편의 작품마다 질게 배어 있다. 어린이에게 결코 가르치려 들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며 살고픈 작가의 진실한 마음이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황금 접시
버나뎃 와츠 / 봄벌

친구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황금 접시를 몰래 들고 나온 이소벨이 겪는 마음의 갈등과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 잡는 용기를 다룬 그림책이다. 잠깐 나쁜 마음이 들어 친구의 황금 접시를 가져왔지만, 용기를 내서 사과하고 바로잡는 이소벨을 통해 마음의 무게를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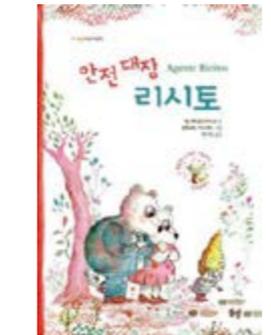
식물은 어떻게 겨울나기를 하나요?
한영식 / 다섯수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이 궁금해 할 나무와, 꽃과 곡식, 나물들의 겨울나기 모습을 보여준다. 땅속뿌리와 땅 위의 줄기식물들, 겨울에도 다른 나무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겨우살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름다운 세밀화와 자세한 글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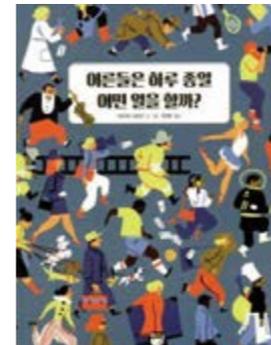
안버려, 못버려, 모두 소중한해
페트라 포스테르트 / 씨드북

아빠와의 합동 빨래 시간, 주머니 속 자질구레한 물건을 버리려는 아빠와, "이건 모두 다 나에게 소중한해!"라며 물건 속에 담긴 엄청난 이야기를 풀어 놓는 아들과의 일상생활 속 대화를 사랑스럽게 그려내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림책이다. 또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상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사소한 보물을 간직하는 꼬마 독자들과 공감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또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안전 대장 리시토
엘 에마토크리티코 / 봄벌

익숙한 명작 동화를 바탕으로 호기심 넘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 생활 지침서"이다. 외출할 때 집안을 꼼꼼하게 돌아보는 것은 물론, 침대나 가구 안전,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등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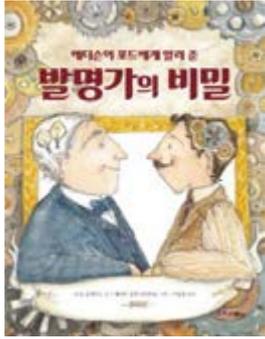
어른들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까?
비르지니 모르간 / 주니어RHK

학교나 병원, 상점 등 우리 주변의 친숙한 장소는 물론 멀리 떨어진 우주나 바다, 산까지 14군데 장소에서 일하는 11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여러 직업의 사람을 만나면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생생한 직업 현장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 자신의 꿈을 그려 볼 수 있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 난다

제주 해녀 삼대의 삶을 풀어낸 그림책이다. 제주 출신인 고희영 감독이 처음으로 쓴 동화로 그 내용이 아름답다. 해녀 삼대의 이야기가 개성성 있는 서사 속에 한 편의 시처럼 매 페이지마다 울렁거리고, 아이의 관점에서 펼쳐진 시점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교훈이나 메시지의 그 어떤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에디슨이 포드에게 알려 준 발명가의 비밀
수잔 슬레이드 / 스킨라

도대체 에디슨이 계속 발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 포드는 싸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포드의 발명품은 실패를 거듭했고, 에디슨의 발명품은 성공에 성공을 이어 갔다. 포드는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었다. 동시에 궁금했다. 도대체 에디슨은 어떻게 해서 계속 발명에 성공할 수 있는 걸까? 에디슨이 가진 발명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포드도 발명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꾼 호기심 많은 두 소년 에디슨과 포드, 그리고 발명가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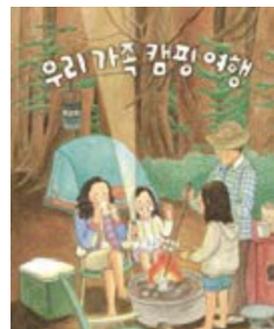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플란텔 팀 / 풀빛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남녀 차별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이 처음 나온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의 지위가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자는 남자가 누리는 수많은 권리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세계 곳곳에서 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 여자가 나라의 지도자인 경우도 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걸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완벽한 계획에 필요한 빈칸
교 매클리어 / 노란상상

완벽한 계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새해 목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이야기에는 무엇이든 계획하고, 메모하기 좋아하는 가족이 등장한다. 하기 싫고 귀찮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들, 좋아하는 축구 선수, 조심해야 하는 질병 등 온가족 모두 열심히 메모를 한다. 집안은 메모한 종이들로 가득 차고,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가족들은 자신의 메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며 무시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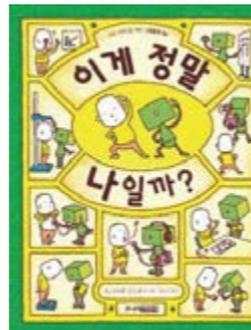
우리 가족 캠핑 여행
백은희 / 비룡소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가족의 일상이 유쾌하고 따뜻하게 담긴 그림책이다. 백은희 작가는 가족과 함께 미국 서부를 17박 18일 동안 여행했던 일상을 만화 형태로 그려 냈다. 작가의 그림에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딸 형경이가 쓴 일기를 모아 엮은 그림책으로, 작가 특유의 정답고 부드러운 그림체와 형경이의 익살스러운 일기가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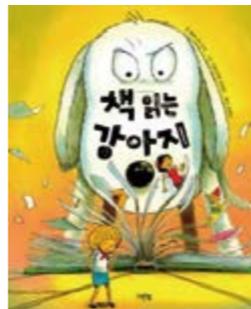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다비드 칼리 / 현복스

뛰어난 상상력과 유머 감각, 때로는 뜻 깊은 메시지로 울림을 주는 세계적인 작가 다비드 칼리의 글과 마우리치오 콰렐로가 그린 그림책이다. 해적인 줄만 알았던 아빠가 실제로는 땅속 깊이 들어가 석탄을 캐는 광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이 아빠의 고된 삶을 이해하면서 한층 더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이 책의 그림은 글과 조화를 이루며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이입시킨다.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 주니어김영사

자기소개를 색다르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가짜 나 만들기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존감의 중요성을 멋지게 풀어내고 있다. 재미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면 한층 자신 있고 여유 있게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숙제, 심부름 등이 귀찮은 아이가 자기를 대신할 로봇을 산다. 그런데 로봇은 자기가 가짜 역할을 하려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 줘야 한다고 한다. 아이는 이름, 가족관계, 겉모습, 취미, 등 로봇이 원하는 더 많은 정보를 쥐어짜듯 생각해서 알려 준다.



책 읽는 강아지
베로니크 코시 / 그린북

루시의 생일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동화책을 선물한다. 루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싫은 강아지가 있었다. 바로 루시의 친구 슬리피다. 슬리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읽어 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듣기 싫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책을 없애 버린다. 슬리피가 없애 버린 책 속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슬리피는 과연 싫어하던 동화 속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펭귄은 너무해
조리 존 / 미디어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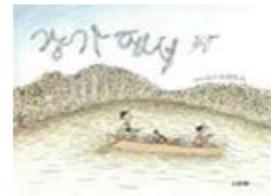
기발한 상상력과 감각적인 그림으로 출간하는 책마다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칼데콧 아너 상 수상 작가 레인 스미스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조리 존의 합작품이다.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아마존 올해의 책, 내셔널인디베스트셀러, 주니어 라이브러리 선정 도서 등 다양한 선정 도서에 이름을 올렸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하며 특별한 독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빅북(big book)'으로 선보인다.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이영아 / 꿈교출판사

실향의 아픔을 간직한 부산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비석을 이용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던 '비석마을'의 모습이 펼쳐진다. 한 사람이 이동하기에도 비좁고 가파른 비석마을 계단을 수십 차례 오르며 이 책을 구상했던 작가 이영아는 이 마을에 실향의 아픔이 묻어나듯, 장면마다 애잔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실제로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칠해진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할아버지와 귀신의 자취를 따라 가볍게 채색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강가에서

트레이스 발라 / 산하

한 소년이 외삼촌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두 사람은 열흘 동안 카누를 타고 글레넬그 강을 거슬러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 여행에서 소년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2012년 여름, 작가는 친구와 함께 카누를 타고 글레넬그 강을 여행했다. 열흘 동안 날마다 관찰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쾌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머금은 그래픽 노블을 완성했다. 소년의 시점으로 전해지는 자연스러운 입말과 자유분방한 선들과 담담한 색채가 어울리며 정겹고 소박한 느낌을 자아낸다.



할아버지의 코트

짐아일스위스 / 이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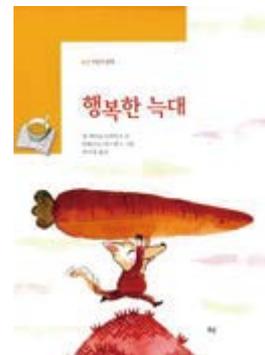
유대계 민요인 '내게는 낡은 오버코트가 있었네'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다. 타고난 이야기꾼 짐 아일스위스와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칼데콧의 재래라는 호평을 받은 바바라 매클린톡의 공동 작업으로 절약과 검소함, 스스로 가꾸는 삶의 자세를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 책은 작고 사소한 물건도 나만의 소중한 특별한 보물로 만드는 비결을 알려준다. 소박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환경도 살리고, 검소한 삶의 자세도 익히게 된다.



고릴라 미용실

박준희 / 책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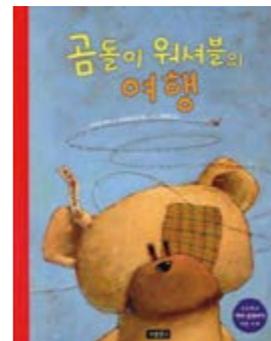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이 담긴 동화책이다. 부담 없이 책장을 넘기며 한바탕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다. 온통 고릴라들 천지인 미용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붙여 몸을 꾸미는 민고릴라, '올해의 털'을 뽑는 털 축제...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꾸만 궁금하게 만든다.



행복한 늑대

엘 에마토크리티코 / 봄별

삼촌 늑대 페로스가 대책 없이 착하기만 한 아기 늑대를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늑대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려고 팔을 걷었다. 아기 늑대를 늑대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삼촌 늑대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아기 늑대가 만든 당근케이크를 맛보고는 손을 들고 만다. 아기 늑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늑대'가 아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기 늑대 교육에 실패한 삼촌 늑대가 불행했을까?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

미하엘 엔데 / 보물창고

미하엘 엔데의 대표적인 철학 동화로 아름다운 그림책으로도 그려져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얼핏 보기에 유아용 그림책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만, 실은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라야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조차 깊이 공감할 만한 철학적 주제를 갖춘 보기 드문 책이다.



행운을 찾아서

세르히오 라이를라 / 살림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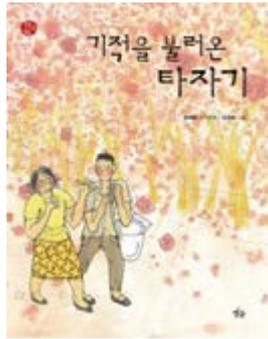
너무도 다른 성향의 두 주인공이 각기 같은 여행지를 향해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 앞에서는 행운 씨의 여행이,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불운 씨의 여행이 펼쳐져 앞으로 읽고 뒤로도 읽는 독특한 그림책이다. 행운 씨와 불운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다. 둘은 우연히도 동시에 휴가를 떠났는데, 목적지가 같다. 똑같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지만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다르다. 여행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차를 타거나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달라도 참 다르다.



그날 밤 인형의 집에서

김향이 / 비룡소

작가는 인형 1,3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로 유명하다. 좋아하는 인형과 함께 인형 박물관에서 동화 읽어 주는 작가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게 평생의 꿈인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작가가 평생 마음에 씨앗을 품고 키워 온 '인형'과 '동화'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과감 없이 풀어냈다. 남들이 버린 인형을 곱게 새 단장하는 걸 낙으로 여기는 작가 자신을 '인형 할머니'라는 캐릭터로 탄생시킨 이번 작품은 '인형 할머니'를 만나 비로소 '가족'을 이루게 된 인형들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운 있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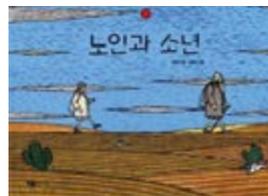
기적을 불러온 타자기
윤혜숙 / 별숲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순간의 기적이 아닌,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는 진짜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동화책이다. 진짜 기적은 그냥 바라고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그 노력이 쌓이고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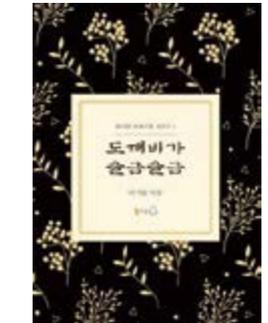
노래하는 은빛 거인
신원미 / 머스트비

장애를 가졌지만 밝고 씩씩한 아이 진이와 아이를 잃고 힘들어 하던 부부가 만나 서로 치유하고 치유 받으며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고장 나 제대로 노래하지 못하는 '노래하는 거인'과 진이와의 교감, 장애를 극복하려는 진이의 용기, 거인이 보여 준 기적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화이다.



노인과 소년
박완서 / 어린이작가정신

박완서 작가가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써낸 콩트집 <나의 아름다운 이웃>에 수록된 짧은 소설을 거친 듯하지만 섬세하고, 세밀하다 못해 치밀하기까지 한 판화 그림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사회 현상은 은유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과 거짓된 가치 판단으로 점철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 환경의 귀중함, 진실한 삶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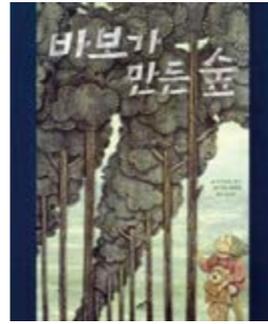
도깨비가 슬금슬금
이가을 / 북극곰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써온 이가을 작가의 동화집으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도깨비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도깨비 이야기처럼 궁금해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도깨비와 씨름을 한 판 벌이기도 하고 도깨비의 마음 씩씩이에 행복해지기도 한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 하나가 가진 위대한 힘을 이가을 작가의 도깨비 이야기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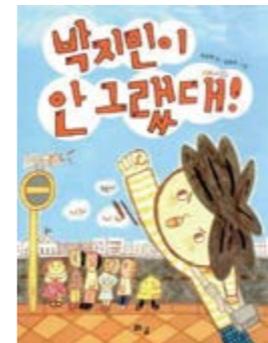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박현경 / 해와나무

시각장애인 동생과 미술관에 가게 된 은이의 특별한 하루를 담았다. 화가는 긴 시간 시각장애인 주인공 찬이에게 감정이입하여 몰입한 끝에 작품성 높은 그림을 완성하였다. 주인공의 아픔이나 상처, 마음 깊은 어둠 속에 자리한 어린이다운 숨길 수 없는 발랄함까지 잘 표현하여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게다가 지극히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판타지적 요소를 느끼게 해줄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바보가 만든 숲
미야자와 겐지 / 담푸스

일본에서 가장 사랑 받는 대표적인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대표작들을 그림책으로 엮은 시리즈이다. 미야자와 겐지는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그리고 [은하철도 999]의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바보가 만든 숲>은 미야자와 겐지가 소리 높여 말하던 자연과의 공존을 가장 잘 드러내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



박지민이 안 그랬대!
유순희 / 리임

황당한 소문을 몰고 다니는 의문투성이 여자아이 박지민을 좋아하는 동민이가 나쁜 소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린 동화이다. 소문의 시작과 부풀러지는 과정, 그리고 소문을 대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태도 등을 경쾌한 이야기 속에 녹여 내어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놀이에 불과해도, 당사자에게는 남모르게 끔찍 앓는 고민거리가 되는 소문의 속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펼쳐서 보여 준다.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
김경민 / 밝은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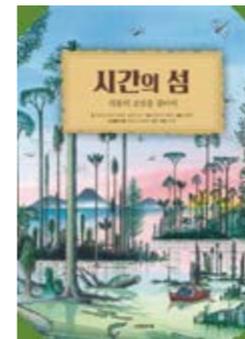
별나라 마트에 도둑이 들었다. 그것도 단팥빵만 노리는 희한한 도둑 말이다. 포장 뜯긴 빵들로 엉망이 된 별나라 마트를 보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할까? 그런데 별나라 마트 빵 습격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일까? 한별이는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를 서기로 맘먹었다. 소중한 별나라 마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무서운 것쯤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단팥빵 도둑과 한별이의 한판 승부!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빙하기라도 괜찮아

이현 /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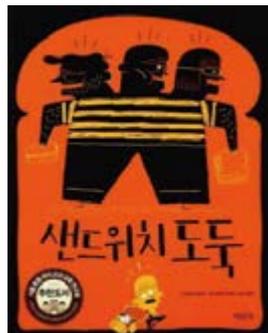
빙하기를 배경으로 또래 공룡이 하나도 없어 심심하다고 투덜거리던 아기 공룡 미르가 세상 모두와 친구가 되는 유쾌한 성장을 담았다. 큰 덩치에 자기밖에 모르던 철없는 공룡이 자기보다 작고 연약한 존재에 대해 눈을 뜨고,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연스레 깨닫는 이야기는 시종일관 발랄하고 유쾌하면서도 가슴 뭉클하다.



시간의 섬

마르타 반디니 / 다섯수레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하고, 공룡이 살았던 때보다도 아주 오래전, 지구의 생태계를 지배해온 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거듭하며 오늘날 지구의 환경을 이루게 되었는지, 대륙 곳곳에서 발굴되는 식물화석을 토대로 현존하는 식물의 조상을 찾아 복원해가는 최초의 고식물학 책이다. 이 책은 고식물학자 교수가 탐험대를 이끌고 몇 억 년 전 '시간의 섬'에 도착해 식물 세계의 비밀을 풀어내가는 탐험일기 형식으로 쓰여 있다. 고생대 식물의 모습을 세밀한 그림으로 복원해 놓았다.



샌드위치 도둑

앙드레 마루아 / 이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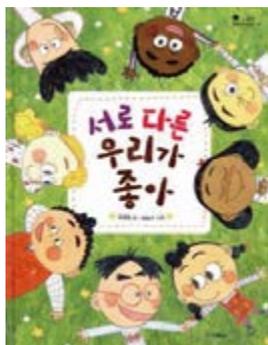
스스로를 꽤나 어른스럽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알랭은 알고 보면 허접 많고, 어수룩한 아이다. 잘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가 당돌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시종 웃음을 자아낸다. 거기에 장난기 가득한 그림도 한몫한다. 그림 속에 숨겨진 유머와 깨알 같은 재미를 찾아보는 즐거움도 글 못지않다.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

김유 / 문학동네

편식을 해도 뭐라 하지 않는 추천 맛집, '맛있는 책 요리점'. 책은 늘 끼고 살지만 한 줄도 읽지 않는 안읽어 씨 가족이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왈왈 씨까지 맛있는 책 요리점을 만나 책맛에 푹 빠져든다. 이 모든 걸 작가는 차림표(차례)에 딱 맞게 이야기를 차려놓고 즐기게 한다.



서로 다른 우리가 좋아

김경화 / 위즈덤하우스

쌍둥이 남매 영우와 시우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쌍둥이 남매 영우와 시우는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차별이 왜 나쁜지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게 된다. 아이들은 영우와 시우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세에 차별을 했던 경험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했던 행동이나 생각들이 차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알렉스 스콧, 레모네이드의 기적

리즈 스콧 / 다산기획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기적을 이룬 알렉스 스콧의 이야기. 첫 생일 직전 소아암 진단을 받은 알렉스 스콧은 다섯 살이 되던 해, 자신도 아프면서 다른 아픈 친구들을 도우려고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세웠다.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집 앞에 열고 레모네이드를 팔아, 그 판매 금액을 소아암 치료법을 찾도록 병원에 기부한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한 소녀가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나를 돕고, 남을 돕고 세상을 바꾼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금인형의 바다

우덕현 / 에스앤아이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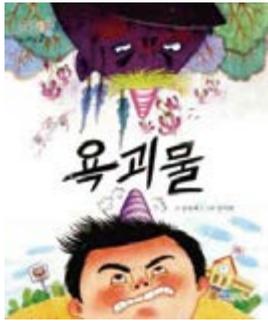
소금인형이 주체인 '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생명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이자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바다의 물고기들과 인간은 공동 운명체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람보다 더 고민하고 노력한다. 소금 인형이 주인공이 되어 바다의 물고기들과 생명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엄마도 나만큼 속상해요?

최형미 / 아주좋은날

아이들에게 부모님도 속상할 때가 있고 누군가가 챙겨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책을 읽은 아이들은 엄마니까 무조건 참고, 아빠니까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효도라고 하면 시험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대단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면 안아주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같은 사소한 일도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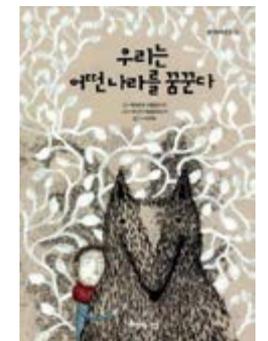
욕괴물
송보혜 / 파란정원

민범이는 오늘도 선생님의 눈을 피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과 나쁜 말을 했다. 민범이의 입에서 욕과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풍기는 지독한 구린내 때문에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코를 막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범이는 팬스레 트집을 잡아 승찬이에게 욕을 퍼부었다. 민범이의 입에서는 새까만 침들이 승찬이 몸에 뿌려져 승찬이의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승찬이는 상처 난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헐떡였다. 그때, 민범이의 그림자에는 커다란 뿔 하나가 불룩하게 솟아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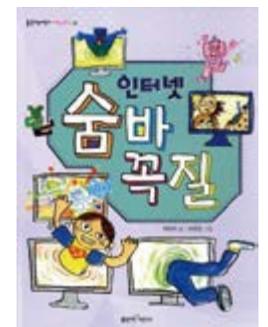
우리 모두 왕
하인츠 아니쉬 / 베틀북

존재에 관한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스무 가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귀엽고 감각적인 그림과 위트 있는 이야기에 책 아래에 제시된 '생각을 키워 주는 질문'과 함께 두 번, 세 번 천천히 다시 읽어 보고, 왕이 세상과 나누는 대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본다면 처음 읽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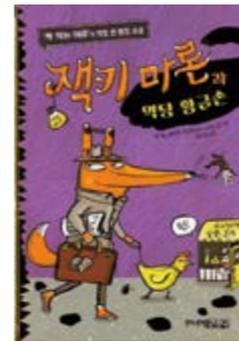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꾼다
게오르크 비들린스키 / 아름다운사람들

혼자와 함께, 나와 세상, 감각과 사유, 언어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세상이 지닌 아름다움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지 기쁘게 느끼고 음미하게 해준다. 모두가 이래야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과도한 잭빛 도시에서 오히려 아이들의 빛과 색깔을 불러와 아이들 존재 자체의 기쁨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용기를 얻게 한다.



인터넷 숨바꼭질
이미지 / 좋은책어린이

초등학생의 98.1%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윤리의식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재미 삼아 올린 글이나 사진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다치게 하지 않을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책 속 건우도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극적인 재미를 찾게 되고, 별생각 없이 은서라는 친구를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시켜 왜곡시키면서 은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



잭키 마론과 악당 황금손
프란치스카 비어만 / 주니어김영사

여우 아저씨와 꼭 닮은 신출내기 사립 탐정 잭키 마론이 첫 사건 의뢰를 받는다. 유능하고 사랑 받는 탐정들이라면 모두 그러하듯이 잭키 마론은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민첩한 두뇌,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용기, 적재적소에 조력자를 배치하는 용인술,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초강력 안경과 슈퍼 감청기, 흔적 분석기가 달린 특수 탐정 가방이다. 최첨단 장비의 힘을 빌어 탐정 잭키 마론은 악당 황금손의 비밀 장소로 무사히 침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와 멋지게 사건을 해결한다.



질문 상자
요슈타인 가아더 / 시공주니어

이 작품에서는 소피의 남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등장해 스스로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삶을 돌아보는 시기에 이른 작가의 간결한 질문들, 그 질문에 담긴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림이 어우러진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차원 높은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어린이에게 철학의 의미와 재미를 알려 주고, 숨 가쁘게만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는 자기 자신과 삶 전체를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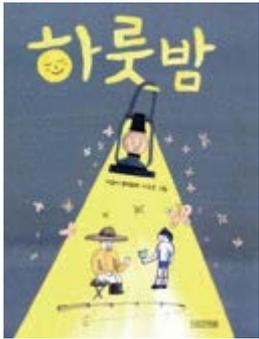
프립 마을의 몹시 집요한 개퍼들
조지 손더스 / 담푸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세 가족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고 있다. 강한 캐릭터들이 한데 어우러진 유머와 풍자로 가득한 이야기로 교훈을 주지만 익살맞은 웃음을 통해서 이기심에 대해 알게 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과장되고 희화화된 일러스트는 인물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따뜻한 색감이 포근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느끼게 해 준다.



하람이의 엉뚱한 작전
신현수 / 좋은책어린이

하람이는 매일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하는 아빠에게 불만이 많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신나는 앞뜰 야영'을 마련했으니 참가 신청서를 내라고 한다. 아빠가 참가하지 못할 것 같아 하람이는 불만을 늘어놓다가 엄마에게 혼이 난다. 마침 일찍 돌아온 아빠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람이와 함께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간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람이는 아빠에게 처음으로 따스함을 느낀다. 엉뚱하게도 하람이는 엄마에게 혼나면 아빠의 관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룻밤
이금이 / 사계절

아동청소년문학 베스트셀러 작가 이금이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저학년 창작동화다. 누구나 공감하는 어린 시절 추억과 조부모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죽음과 영원함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동화다. 엄마 없는 밤, 아빠는 거실에 텐트를 치고 어린 시절의 특별한 하룻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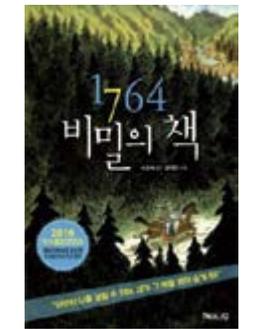
학교야, 울지마!
오채 / 문학과지성사

곧 폐교를 앞두고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의 산꽃분교 아이들이 학교가 사라지는 슬픔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찾는 이야기가 유쾌하고 가슴 뭉클하게 그려져 있다. 다섯 아이들의 생생한 캐릭터, 산골 마을의 포근한 풍경, 어른들과 아이들의 따뜻한 교감이 읽는 내내 감동을 자아내며 금세 산꽃리 산꽃분교로 어린이 독자들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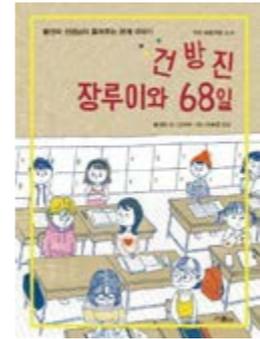
100만 가지 소원
브랜던 로브쇼 / 두레아이들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설화적 요소를 모티브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주인공이 우연히 얻은 엄청난 능력(100만 가지 소원)으로 마음껏 모험을 펼치는 유쾌한 동화이다. 거인이나 소인이 되어보고, 슈퍼 영웅이 되어 적을 물리치고,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혼내주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눈앞으로 가져오고, 가족과 친구의 꿈을 모두 이루어주는 등 주인공의 이야기는 평범한 어린이의 눈높이에 잘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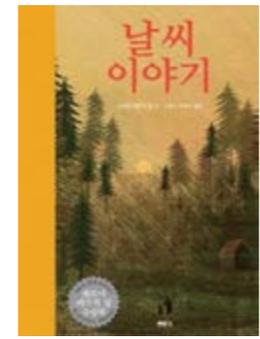
1764 비밀의 책
조경숙 / 해와나무

조선 역관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된 추리 동화이다. 1764년에 일어난 역사 속 실제 사건에 상상력을 덧붙여 이 동화를 썼다. 오랜 기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역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조선, 일본의 외교사까지 꼼꼼하게 추적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감탄할 만큼 오밀조밀하게 짜인 추리 구성,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팽팽한 두뇌 싸움이 매력적인 역사 동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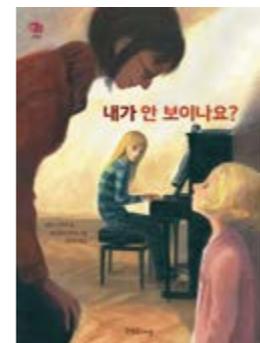
견방진 장루이와 68일
황선미 / 위즈덤하우스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고 이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현명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견방지고 잘난 체하는 전학생 장루이와 한번도 주목 받아본 적 없는 소극적인 아이 오윤기. 사사건건 부딪히던 두 사람이 어느덧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된다.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아이들의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날씨 이야기
브리타 테크트럽 / 북뱅크

브리타 테크트럽은 모네나 고흐 같은 풍경 화가들에 힘입어, 마치 한 장 한 장 그림엽서를 그리듯 아름다운 색채로 날씨의 종류에 따른 대기의 특성을 매우 잘 잡아냈다. 유명 화가의 화보나 날씨에 관한 시에 멋진 그림을 곁들인 시화집처럼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이 한 권의 책을 온 가족이 아이들 둘레에 모여 앉아 즐기면 좋겠다.



내가 안 보이나요?
실벤즈 자우이 / 한울림스페셜

장애아의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과 소외,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한다. 장애 동생을 사랑하지만, 부모의 태도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비장애인 형제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장애 가족, 그중에서도 장애아와 함께 성장기를 보내는 비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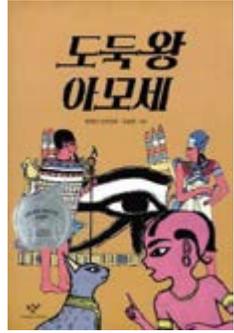
네모 돼지
김태호 / 창비

분홍빛 냉장고처럼 생긴 네모 돼지, 풍선처럼 하늘을 날게 된 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호랑이 등 과감한 상상력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곱 편의 동화를 담았다. 이야기마다 동물의 눈에 비친 세상을 낯설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 냈다. 간결하고 담담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눈을 더욱 밝아지게 할 것이다. 작가는 일곱 편의 동화에서 과감한 상상력을 통해 문제적인 상황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달 다섯 마리가 필요한 가족
박현숙 / 뜨인돌어린이

농촌의 새마을운동과 도시의 산업화가 한창이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삼 남매의 이야기다.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난 엄마. 엄마 없는 빈자리는 홍이, 연이, 걸이 삼 남매에게 무척 크기만 하다. 한겨울에 밥하고 빨래하랴 손이 부르든 연이, 고기 구경하기가 힘들어 고기 대신 산에서 메추리알을 가져온 홍이, 돈 없는 집안 형편을 알기에 속마음을 감추는 걸이는 지지리 가난하고 불편한 것투성이었던 1970년대 농촌 아이들의 삶과 고민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도둑왕 아모세
유현산 / 창비

‘혼자만 잘 지내는 게 새 시대에 맞는 일인가요?’ 당돌한 질문을 던진 한 소년이 있다. 고대 이집트, 이크나톤 파라오 시절이 고위 관리였던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아모세.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둑이 되었고, 투탕카멘의 무덤을 도굴했다는 범인으로 지목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파라오의 군대와 경찰은 ‘아모세 도둑단’을 추격하며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플롯, 당대 이집트에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물과 풍경을 보듯 철저한 고증과 실감나는 묘사가 일품이다.



도전! 희망 신기록
로빈 스티븐슨 / 책속물고기

책은 별의별 신기록 세우기에 도전한다. 흔들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 돌이서 오랜 시간 뺨 때리기, 90초 안에 소시지 17개 먹기……. 사실 책은 신기록을 세우면 가족이 웃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생 애니가 갑작스럽게 죽은 뒤로 책의 가족은 슬픔에 빠졌다. 엄마는 우울증이 걸렸고, 아빠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 책은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그때 새로 이사 온 케이트는 책의 마음을 이해해 주며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그리고 책의 엄마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데…….



마귀할머니와 그냥할머니 & 해적고양이
김용준 / 푸른책들

제13회 푸른문학상 수상 동화집으로 5편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 표제작인 김용준 작가의 <마귀할머니와 그냥할머니 & 해적고양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동화”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마냥 보살펴 주어야 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주체성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작품이다.



바람처럼 달렸다
김남중 / 창비

웃음이 담긴 이야기를 건네는 김남중 작가의 연작동화집이다. 자전거를 통해 꿈을 키우고 알쏭달쏭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동화들로, 열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의 재미와 주제를 간직하면서도 서로 하나로 엮이는 동화이다. 작가는 주인공 소년이 자전거와 함께하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듯 경쾌하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소년의 마음이 훌쩍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름달숲에서 생긴 일
최은옥 / 해와나무

현대 가족의 실체를 포착한 매혹적인 미스터리 동화이다. 흡인력 높은 이야기로 치밀하고 탄탄한 구성, 날카로운 주제 의식, 생생한 심리 묘사, 반전이 빛나는 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읽기 좋다. 여름휴가를 떠난 현규네 가족은 보름달숲에 갇히고 만다. 가족들은 숲에 있는 어느 통나무집에 목격 된다. 다리를 절뚝이는 주인 여자와 조카라는 여자아이가 현규네 가족을 맞이한다. 그들이 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은 가족들은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배탈이 나 음식을 먹지 못한 현규만이 오도 가도 못 한 채로 남겨지는데…….



브로커의 시간
서연아 / 바람의아이들

모두가 잠든 밤, 밤공기 속으로 빠져나온 기억들을 수집하여 지하세계의 인간들에게 판매하는 브로커의 비밀은 주홍이와 노홍이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러나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주홍이와 노홍이 앞에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브로커의 시간이 펼쳐진다. 마지막까지 긴장감 있게 전개되는 이 작품은 인물들이 갖가지 사건을 겪으며 자신들이 지닌 공포증 등을 극복하게 만드는 대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이에게 약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한층 세련된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준다.



소금이
김우경 / 고인들

고(故) 김우경 작가의 유작 동화 <검정소금붉은도깨비 1~3> 전 3권을 한 권으로 묶었다. <소금이>는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을 법한 장면들이 가득 펼쳐진다. 소금은 엄마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지만 산은 친구들과 천지고, 놀고 배울 것 투성이다. 소금은 나무와 풀, 물고기와 많은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다. 어린애같이 떼만 쓰는 산신령 할아버지, 씨름과 술래잡기를 좋아하는 도깨비 아저씨들, 아귀, 물뱀, 물수리로 마음대로 변신하는 물꼬대왕 할아버지 따위, 우리나라 옛이야기에서 튀어나온 여러 캐릭터들의 재미에 폭 빠지게 한다.



스크린을 먹어 치운 열흘
소피 리갈 굴라르 / 씨드북

평범한 우리 아이들에게 스크린을 끄고, 잃었던 아날로그 감성을 찾아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하는 열흘간의 투쟁기를 유머러스하고 솔직담백하게 풀어 놓는다. 스크린 없는 열흘에 도전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과 가족들 모두를 디지털 디톡스로 이끄는 이야기는, 풍부한 에피소드로 공감을 끌어내며, 작고 사소한 변화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전자 기기의 화면 대신 현실 세계와 실제로 소통하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경험치가 쌓인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다.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배성호 / 초록개구리

2013년 5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의 편의 공간인 '도란도란 도시락 쉼터'가 문을 연다. 그 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데가 없어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이 많았다. 실내 식사가 금지되어 있어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박물관을 찾은 이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이다. 민원 게시판에 아무리 많은 건의 사항이 올라와도 소용 없었지만, 한 초등학생이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낸 편지가 박물관을 움직였다. 이 실화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국민의 권리를 실천한 사례로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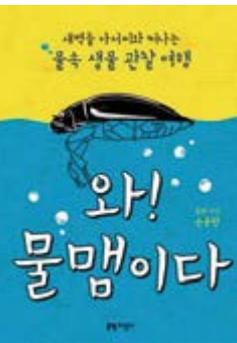
안녕 크렌쇼
캐서린 애플게이트 / 책과콩나무

가족과 우정과 회복에 대한 마법 같은 이야기이다. 주인공 잭슨의 1인칭 시점과 간결한 문체로 상상 친구인 크렌쇼와의 이야기를 개성적이면서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상상 친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실을 중요시하는 과학자를 꿈꾸는 잭슨의 캐릭터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상상 친구 크렌쇼가 묘한 대비를 이루며 작품의 흥미를 더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워킹푸어'나 결식아동,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무너지는 과정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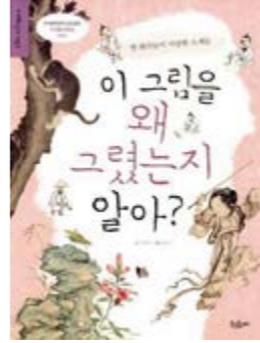
위험한 게임 마니또
선자은 / 푸른숲주니어

서로에게 비밀 친구가 되어 주는 마니또 게임을 통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담았다. 작가는 '가식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보낸 범인을 추리해 가는 과정에서 '모범생'과 '학급 임원', '단짝 친구', '왕따'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속속들이 드러내 보여 준다. 특히 경쟁과 심리전이 팽배한 교실 안에서 마냥 착하고 순해 보이던 아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고, 늘 소외되고 약자로 보이는 아이도 사실은 복잡한 속내를 가진 인간임을 섬세하게 포착해 낸다.



와! 물맴이다
손윤한 / 지성사

수질 환경의 상태를 보여주는 물속 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2014년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와! 거미다: 새벽들 아저씨와 떠나는 7일 동안의 관찰 여행>을 펴낸 생태 활동가 손윤한 선생님의 두 번째 관찰 기록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다양하고 신비로운 거미들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물속 세상에 사는 물속 생물이 주인공이다.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송희경 / 웃는돌고래

어린이들을 위해 오랫동안 우리 그림을 연구해 온 송희경 선생님이 우리 옛 화가들과 그들이 남긴 그림에 숨어 있는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기 다른 대상에 훌쩍 빠져서 그림을 그렸던 괴짜 같으면서도 특별한 재능을 지녔던 화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옛 화가들이 보다 가깝게 다가오고 옛 그림이 새롭게 보인다.



우리 둘
후쿠다 다카히로 / 찰리북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시기, 나를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을 찾는 어린이를 위한 연애 소설이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6학년 가을, 한 반이지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 없는 준이치와 가스미가 우연한 계기로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함께 좋아하는 미스터리 작가의 책을 읽게 되면서 '특별한 사이'가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잊을 수 없는 외투
프랭크 코트렐 보이스 / 논장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어린이들의 우정'이라는 주제를 아주 설득력 있게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뛰어난 문학 작품이다. 유머와 수수께끼와 정서적 호소력이 넘쳐흐르는 탄탄한 이야기에 매혹적인 사진이 더해져 교묘하고도 마법적인 즐거움이 넘친다. 우리 시대의 논쟁거리를 참여적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 판타지의 힘과 어린이의 세계를 지키고 가꾸는 것에 대해 두고두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



제후의 선택
김태호 / 문학동네

아홉 편의 단편집으로 다양한 작법과 막힘없는 진행은 읽는 이를 순식간에 사로잡는다. 독특한 필력으로 구축해 놓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독자들은 책을 덮고 나서, 안개가 걷힌 듯 시원해진 시야를 경험하게 된다. 표제작 「제후의 선택」은 '손톱 먹은 쥐'에 관한 민담을 모티프로 한다. 이혼을 앞두고 '나누는 일'을 척척 진행해 가던 제후의 부모는 제후 앞에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만다. 이것도 저것도 서로 자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부모는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말한다. "네가 결정해,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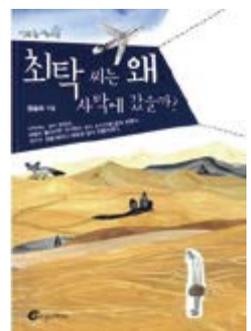
책이 있는 나무
비센테 무뇨스 푸에예스 / 풀빛미디어

버지니아는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하는 소녀다. 책을 읽고 책을 쓰며 살아가는 아빠의 영향을 받은 딸답게 언제나 독서를 하면서 지내지만, 버지니아의 동생들은 도대체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버지니아는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나간 산책길에서 숲 속의 나무 위에 조그만 오두막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조심스레 그 오두막에 올라간 버지니아의 눈에 책이 한 권 보인다. 버지니아와 이름이 똑같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 <울랜드>였다. 버지니아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오두막으로 가서 <울랜드>에 빠져든다.



첨단과학이 번쩍번쩍
발레리오 로시 알베르티니 / 청어람미디어

130권 이상의 물리, 화학, 재료과학과 관련된 책을 출간한 교수에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방송인 겸 작가인 페데리코 타디아가 첨단과학과 신기술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이 책은 첨단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질문과 답을 이어나간다. 방 안을 밝히는 전구는 어떻게 켜져 빛을 내는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집 안의 전자제품을 조작하는 리모컨은 어떻게 기기와 정보를 주고받는지,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무엇인지, 높이 빨리 하늘을 나는 거대한 비행기들은 어떤 물질로 만드는데 대해 깨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최탁씨는 왜 사막에 갔을까?
정승희 / 바람의아이들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사라져 버린 엄마와 아빠를 찾기 위한 최탁 씨의 여행기를 담은 환상 동화다. 아동문학에서는 특이하게도 어른인 주인공을 내세우는 이 작품은 최탁 씨의 사막 여행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보물 같은 의미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막으로 여행을 떠난 부모님이 실종된 지 6개월, 최탁 씨는 매일 똑같은 나날들을 보내다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탁 트인 사막을 향해 부모님을 찾는 여행을 시작한다.



통조림 학원
송미경 / 스킨북

가족을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승환이 앞에 아픈 기억을 통조림에 저장해 없애 준다는 뽀에로 박사가 나타난다. 뽀에로 박사에게 이끌려 통조림 학원에 다니게 된 승환이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갇혀 통조림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구해 내려고 하는데... 요즘 아동문학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작가가 현실과 다른 판타지 속에서 아이들에게 되찾게 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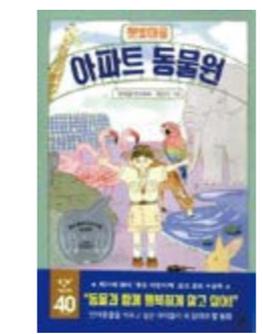
플레이 볼
이현 / 한겨레아이들

부산의 구천초등학교 야구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만고만한 성적을 낸다. 변변한 야구 연습 시설도 갖추지 못했고, 야구부원들도 근근이 팀을 꾸릴 정도밖에 없다. 그러던 구천초 야구부가 달라졌다. 실력이 좋은 동구네 기수가 6학년이 되었고, 새 감독님이 부임하고, 눈에 띄는 신입부원도 들어왔다. 새 감독님은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야구를 가르친다. 감독님의 지도 아래 구천초 야구부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하며, 하루가 다르게 실력을 쌓는다. 과연 구천초 야구부는 부산 지역 예선에서 우승해서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



해피 버스데이 투 미
신운선 / 문학과지성사

부모로부터 방임된 남매가 아동 보호소에 맡겨져 겪게 되는 심리적, 현실적 상황을 진정성 있게 보여 주는 작품으로, 암담한 현실 앞에 맞닥뜨린 아이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바람이자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쓰레기 더미 집에서 동생과 함께 발견된 주인공 유진이는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쓰라린 성장통을 겪으며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어린 나이에 고군분투하게 된다.



햇빛마을 아파트 동물원
정제광 / 창비

동물을 좋아하는 주인공이 아파트 베란다에 동물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어린이가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로, 도시 속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와 생활 경험 속에서 도시 속의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동화로, 어린이 독자에게 사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2018 초등학생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 목록

친구의 서재 둘러보기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처 제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
TEL. 064-717-6400 FAX. 064-717-6490
www.jejulib.or.kr
인쇄처 디자인블루엔트 TEL. 064-713-1104